

석사학위논문

집단미술상담이 아동의 자아개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박태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강 경 숙

2002년 2월

집단미술상담이 아동의 자아개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박 태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10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강경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2년 12월 일

심 사 위 원 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문초록>

집단미술상담이 아동의 자아개념 향상에 미치는 효과

강 경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본 연구는 집단미술상담이 아동의 성격 형성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자아개념과 그 하위영역 향상에 어떤 효과를 주는가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집단미술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자아개념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집단미술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자아개념 하위영역인 학업적 자아, 사회적 자아, 정서적 자아, 신체적 자아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S초등학교 4학년 180명을 대상으로 자아개념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자아개념 진단검사 결과 상, 하 각각 25%에 속하지 않는 아동 중 24명을 선정하였다. 이들 24명 가운데 상담을 희망하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아동 12명을 상담 집단으로 하고, 나머지 12명을 비교집단으로 하였다.

한국미술치료학회(2000)의 자아개념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토대로 연구대상 아동에 알맞게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상담집단은 사전검사 실시후 주당 2~3회씩 5주에 걸쳐 총 13회기(1회 소요시간 90분~100분)의 집단미술상담을 실시한 후 사후검사를 하여 집단미술상담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과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 본 논문은 2002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구는 정보현(1991)이 제작한 ‘초등학교용 자아개념 검사’이다. spss/pc+ 통계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여 사전에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동질성을 t검증하였고, 집단미술상담 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사전·사후검사 결과 비교를 위한 t검증을 실시하여 $p < .01$ 과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상담집단을 대상으로 사후검사 한 달 후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집단미술상담을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는지 사후검사와 비교를 위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질적검사로 Burns(1998)의 ‘K-HTP(동적·집·나무·사람)검사’와 김동연·공마리아(2000)의 ‘인물화 및 집·나무·사람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법’에 의하여 상담집단의 K-HTP를 분석해서 사전·사후의 심리상태 및 자아개념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상담은 아동의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가 있다.

둘째, 집단미술상담은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인 학업적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가 있다. 집단미술상담 후 아동들이 자신의 능력과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어 학습참여도가 높아졌고 발표력도 좋아졌다.

셋째, 집단미술상담은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인 사회적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가 있다. 집단미술상담 후 아동들이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좋아졌고, 중요한 타인인 부모와 교사, 친구 등에 대한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었다.

넷째, 집단미술상담은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가 있다. 집단미술상담 후 아동들이 억압된 불안감이 없어져 안정되었고 적절히 자기 정서 표현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을 가치롭게 느끼는 성향이 향상되었다.

다섯째, 집단미술상담은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인 신체적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가 있다. 집단미술상담 후 아동들이 자신의 신체와 외모 및 운동 능력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며 만족감과 기대감이 향상되었다.

여섯째, 특히 정서적 자아개념이 다른 하위영역 보다 평균이 38.67에서 45.50($t = 3.060$, $p < .01$)으로 크게 향상되어 집단미술상담은 특히 아동의 인지적 측면보다 정서적 측면에 더욱 큰 효과가 있다.

집단미술상담은 미술활동을 통해 집단 장면에서 나타나는 자기표현과 자기 통찰,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동의 성격 형성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와 가설	3
3.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5
1. 집단미술상담의 개념 및 특징	5
2. 자아개념	9
3. 집단미술상담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14
III. 연구 방법	16
1. 연구 대상	16
2. 연구 설계	16
3. 연구 절차	17
4. 측정 도구	19
5. 자료 처리	22
IV. 연구 결과 및 해석	24
1.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 검증	24
2. 가설 검증	25
V. 요약 · 결론 및 제언	35
1. 요약	35
2. 결론	37
3. 제언	39
참고문헌	40
Abstract	43
부 록	45

표 목 차

<표Ⅲ-1> 실험 설계	16
<표Ⅲ-2> 집단미술상담 프로그램	18
<표Ⅲ-3> 자아개념 검사의 영역별 관련문항 및 신뢰도	19
<표Ⅳ-1>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사전검사 차이 검증	24
<표Ⅳ-2>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개념 검사 결과 비교	25
<표Ⅳ-3>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학업적 자아개념 검사 결과 비교	27
<표Ⅳ-4>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회적 자아개념 검사 결과 비교	28
<표Ⅳ-5>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정서적 자아개념 검사 결과 비교	28
<표Ⅳ-6>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신체적 자아개념 검사 결과 비교	29
<표Ⅳ-7> 상담집단의 자아개념 사후·추후 검사 결과 비교	31
<표Ⅳ-8> 상담집단의 사전·사후 집·나무·사람 등의 특징 비교분석	32

그림 목 차



[그림Ⅱ-1] 자아개념의 위계적 구조에 관한 가설적 모형	13
[그림Ⅳ-1] 상담·비교집단의 사전·사후 자아개념 점수 비교	26
[그림Ⅳ-2] 상담·비교집단의 자아개념 하위영역별 점수 변화 비교	30
[그림Ⅳ-3] K-HTP 사전검사	33
[그림Ⅳ-4] K-HTP 사후검사	33

부 록 목 차

<부록 1> 자아개념 진단검사	46
<부록 2> 우리의 약속	50
<부록 3> 집단미술상담의 실제	51
<부록 4> 상담집단의 사전·사후 K-HTP검사 특징 비교	74
<부록 5> 집단미술상담의 회기별 그림	76

I. 서 론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문제와 가설,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고자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아동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작은 사회’이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성격의 틀이 형성되고 자아개념이 싹트는 시기이므로 건전한 성장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격 형성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즉 지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인지적 측면과 자기를 조절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정의적 측면을 고려한 교육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정의적인 특성의 하나인 자아개념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태도와 가치관 형성, 성격과 정신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승현(1996)은 어린 시기에 한 번 형성된 자아개념은 쉽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성 초기부터 바람직한 자아개념이 형성되도록 교육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자기에 대한 의식이 싹트는 시기에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을 촉진시켜 준다면 긴장과 불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고,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다 바람직하게 적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지나치게 아동의 지식이나 기능만을 강조한 나머지 조화롭고 참된 인간 교육이 어려워졌으며, Lyon이 지적한 ‘지적인 반쪽 인간(The intellectual half man)’만을 생산해 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Patterson, 1973, 재인용). 그 결과 비인간화 현상과 청소년 비행이 흉포화, 저연령화 되고 청소년 범죄율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청소년

상담원(2001)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21.9%)과 집단따돌림(19.8%)이 학교 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학교 폭력은 1993년(5,470건)에 비하여 1997년(39,883건)에는 72.95%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문선화, 1998, 재인용).

이러한 교육현실의 자각으로 학교 내외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위대한 교육환경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래 ‘미술’을 매체로한 집단상담이 아동의 문제 행동을 개선시키거나 아동의 자아개념을 올바르게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미술은 비언어적 표현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수용되며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분노 적대감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화의 기능을 하며, 자신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줄 수 있어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도록 도와주는데 효과가 있다(김동연 외, 1997). 그리고 언어적인 표현수단과 달리 인간의 감정이나 사고가 자신도 모르게 구체화되는 동시에 구체적인 유형의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경험, 기분, 내적 욕구를 나타내는데 어려움을 적게 느끼고 무의식적인 갈등, 정신 역동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조형활동을 통해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통하여 자기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아동의 독자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유혜정(1997)의 아동의 그림검사에 나타난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최외선 등(1998)의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기 존중감과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박주연(1999)의 자기표현 미술활동이 정서장애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등이 있는데, 연구 결과 자아개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며, 미술상담이 학교상담이나 가족상담에서 이루어진다면 내담자의 원만한 발달을 돕고 아동 또는 청소년의 문제를 완화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집단미술상담은 미술활동을 소집단에 적용한 것으로 작품의 미적 가치에 대한 평가보다 개인의 상상력과 독특한 개성을 중요하게 평가함으로써 좀더 깊이 있는 자기 통찰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며 해결해 나가는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또한 소집단 구성원들간의 바른 인간 관계를 유지하면서 표현 활동을 서로 돕고 격려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자아개념의 형성초기에 있는 일반 아동들에게 집단미술상담을 실시하여 아동의 자아개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자기존중감을 높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교육활동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 문제와 가설



집단미술상담이 아동의 자아개념 향상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집단미술상담이 아동의 자아개념 향상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가?

둘째, 집단미술상담이 아동의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인 학업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개념 향상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집단미술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자아개념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집단미술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자아개념 하위영역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1 학업적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2 사회적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3 정서적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4 신체적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1) 집단미술상담

집단미술상담은 ‘미술치료’를 매체로 집단상담을 통해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들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며 해결해 나가는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또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동시에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통하여 자아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집단상담의 한 분야이다.

원래 미술치료는 심신의 장애를 겪고 있는 대상을 미술기법으로 치료하는 심리치료의 한 분야로 교육, 재활, 정신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미술기법을 활용하여 집단상담을 실시하므로 ‘집단미술상담’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집단미술상담이 아동의 자아개념 향상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관련 이론으로 집단미술상담의 개념 및 특징, 자아개념의 정의 및 발달, 자아개념의 구조, 집단미술상담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 집단미술상담의 개념 및 특징

집단미술상담은 ‘미술활동’을 매체로 집단상담을 통해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들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며 해결해 나가는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또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동시에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통하여 자아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집단상담의 한 분야이다. 최근의 경향은 분석적 개인 미술치료보다는 집단 장면에서 나타나는 자기표현과 보다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효과가 큰 집단미술상담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김동준(2000)은 집단미술상담은 기존의 집단상담이 언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아동들에게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집단상담을 말하며, 미술기법을 활용하는 집단미술치료에서는 흔히 심리적 장애를 가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치료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집단미술상담은 일반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예방차원에서 생활문제 해결에 필요한 태도나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집단상담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미술활동’은 원래 ‘미술치료’의 의미이며, 미술치료는 시각예술인 미

술작품(작업)을 통해서 인격의 통합 혹은 재통합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으나 미술치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어렵다. 용어에 있어서도 회화요법, 묘화요법, 그림요법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영어의 Art therapy도 예술치료, 예술요법, 미술치료, 회화요법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예술치료로 번역하게 되면 미술만이 아니고, 음악, 연극, 시, 소설, 춤, 레크레이션, 놀이, 작업 등 자기표현을 매개로 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 미술로 번역할 경우에는 그림, 조소, 디자인, 서예, 공예 등 미술의 전 영역을 말하며, 사실상 그림만을 사용하여 치료에 도입한다면 묘화나 회화요법으로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조소작품을 통해서나 디자인 등을 이용했을 때는 미술이라는 용어가 바람직하다(미술치료학회, 2000).

미술치료라는 용어는 1961년 『Bulletin of Art therapy』의 창간호에서 편집자인 Ulman의 논문에서 표현되었다. Ulman은 미술치료는 교육, 재활, 정신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건 간에 공통된 의미는 시각예술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인격의 통합 혹은 재통합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진술하였다.

미술치료의 근원적인 뿌리는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의 선조들이 자신들과 세계와의 관계를 동굴벽화에 표현하고, 심상으로서 실존의 의미를 추구했다. 오늘날의 미술치료는 상징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Freud와 Jung의 역할이 컸던 현대 의학 정신과 함께 성장해 왔다.

미술치료에 대해 개척자 역할을 한 사람은 Naumburg로 1940년대부터 치료적 양식으로서의 미술표현을 도입하였다. 정신분석적 이론과 경험에 입각하여 환자들에게 자발적인 자유연상을 하여 그림을 그리도록 고무하였다.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Kramer가 Naumburg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면서 연구를 계속하였다. 두 사람의 접근 방법이 미술 자체에 역점을 두느냐, 치료에 역점을 두느냐하는 관점의 양극을 형성하게 되었다. Naumburg는 치료를 강조하여 미술 작품이 환자의 통찰의 기

조를 형성한다고 하였으며, Kramer는 언어적 경향이 없는 미술의 창조적 과정 그 자체의 통합적, 치료적 역할을 강조하는 ‘창조적 과정’을 중시하였다. 1970년대에 와서 통합적인 입장인 Ulman(1977)은 ‘미술심리치료’와 ‘치료로서의 미술’이란 용어를 다 포함하는 정의를 내리려고 노력하였으며, Naumburg와 Kramer의 정신역동 지향적 미술치료를 통합하면서 쟁점부분에 관해서는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김보경(1998)은 환자의 작품이 예술이나 아니냐를 논하는 것보다는 대상에 따라서 상동적인 표현이나 강박적 표현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때로는 예술적 성취감을 중시해야 하며 미술치료는 치료적 측면과 창조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술치료를 반복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언어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에서 지금까지 상실·왜곡·방어·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자기상, 자기 자신의 세계관을 재발견하여 자기 동일화, 자기 실현을 꾀하게 된다(한국미술치료학회, 2000). 또한 미술 활동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 때문에 작업 치료적 효과나 놀이의 효과, 레크레이션 효과, 정화작용의 효과, 근육 이완적 효과 등이 있다.

Kohut(1971)는 미술작업의 기능이 고통과 긴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여, 살아있는 대상에 대해서 자아조절 기제가 작용하여 고통과 긴장을 없앨 뿐만 아니라 자아의 힘을 만든다고 하였다.

집단미술치료는 집단심리치료에 미술을 도입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동료집단을 중시하는 시기이고 또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무척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집단 미술치료에서의 ‘집단’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집단이 된다. 집단원들은 에너지와 감정을 미술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억압된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개인치료에

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잠재적 치료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전미향, 2000). 또한 집단미술치료의 장점(한국미술치료학회, 2000)으로 첫째, 집단 초기 집단원 상호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도 사인펜, 가위, 풀 등의 미술재료는 이미 각 개인에게 친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경험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자발적으로 많은 경험을 표현하게 한다. 둘째, 미술치료는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이 먼저 미술재료에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기표출이 위협적으로 느껴져 집단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셋째, 작품자체가 집단과 개인에게 상징적으로 의미를 줄 수 있어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자기 표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넷째, 집단원 모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어 개인적 경험과 집단경험을 함께 제공한다. 즉 개인적인 작품제작 시간은 사적인 경험의 시간이며, 다른 집단원과 서로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공적인 경험의 시간이다. 그리고 중간단계로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품은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다양한 의미를 주고 집단원간의 개인차와 보편성을 쉽게 인식하게 한다. 다섯째, 미술은 상호작용을 쉽게 유발시키고, 의식의 검열을 적게 받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행동 양식이 빨리 의식되어 집단 진행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미술기법을 활용하여 집단상담을 실시하므로 집단미술치료를 집단미술상담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집단미술상담이 아동의 자아개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자아개념

1) 자아개념의 정의 및 발달

자아개념은 1890년 W. James가 그의 저서 「심리학의 원리」에서 인간의 성격을 형성하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기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의 총체라고 정의한 이래 오늘날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자아상,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자아수용 등으로 다르게 정의되어 왔으며 교육의 중요 변인으로 삼아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다.

이러한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 추이는 Freud, Jung, Erickson 등의 정신분석학적입장, Sullivan, Cooley, Kinch 등의 사회심리학적 입장, Rogers, Snygg, Combs 등의 현상학적 입장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Freud(1964)는 성격의 구조를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로 나누고, 자아는 원초아(id)로부터 분화되어 나온 것이며 개체가 외부 세계와 접촉함으로써 발달한다고 하였다. 자아는 지각의 주체로 원초아의 원시적 충동과 초자아의 도덕적 제재의 틈에서 이를 조정하고 외부의 현실적 요구에 대처해 나가는 임무를 맡고 있어서 역동적이며 통제의 강도를 뜻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김봉소, 1975, 재인용).

둘째, 사회심리학적 입장에서는 자아를 사회생활의 산물로써 혹은 그 반향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회심리학적 입장을 대표하는 Kinch는 자아개념은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자질의 조직체이다. 이 자질 속에는 특성도 포함되지만 역할도 포함된다. 개인의 자기 자신에 관한 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며, 이것은 다시 그 개인의 행동을 유도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정의하였다(황정규, 1988, 재인용). 정원식(1968)은 자아개념을 한 개인이 처해 있는 생

활의 장에서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느낌으로 정의하였다. 자아 개념은 경험의 소산이며, 특히 주변의 중요한 타인과 상호작용의 경험이 그 발달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자아개념이란 타인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현상학적 입장에서는 자아는 대상으로서의 자아와 행위자로서의 자아가 통합된 것으로 자신에게 감지된 대상인 동시에 행동을 이끌어 가는 주체라고 본다(장은영, 1988).

Combs와 Snygg(1959)는 자아개념은 개인이 갖고 있는 지각 대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이며, 유기체의 모든 행동은 빠짐없이 그의 현상적 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아는 자기의 일부 또는 특징으로 경험되는 모든 것인데, 이것을 그들은 현상적 자아라 하였다(윤희준, 1984). 이들 현상학적 입장에서 자아란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환경과 자신에 대한 의식적인 지각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자아개념이란 자기만의 특유한 지각이며 자기존재의 한 부분이며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승현(1996)은 성격 형성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과 감정 및 의미 내용이라고 하며 이러한 자아개념은 대인 관계에서 자기 스스로를 알고 발견하는 일을 통하여 형성되고 한번 형성된 자아개념은 쉽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성 초기부터 바람직한 자아개념이 형성되도록 교육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들에 따라 자아개념을 보는 시각과 의미는 다양하나 자아개념은 개인이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신에 대해 가지는 지각, 신념, 태도 등 자기 가치의 총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면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자아개념

의 형성과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은 출생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자기의 신체, 자기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지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게 됨으로서 비로소 자아개념이 형성되며,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경험 축적으로 더욱 확장되고 수정된다(박연주, 1992).

Shavelson과 Bolus(1982)는 자아개념을 자신에 대한 지각된 총체로 보면서 이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중요한 인물들로부터 받는 강화와 평가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Conviction과 Omelich(1981)등은 인간은 자기가 성취한 것에 대해 자신이 세운 기준에 의해서이건 또 다른 사람의 성취수준과의 비교를 통해서이건 만족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성공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또 성패의 원인을 내적 또는 외적으로 귀인 시키느냐에 따라서도 자아개념의 형성에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출생 초기에는 부모의 역할이 많이 작용되고 차츰 친구들과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개개의 인간은 자기에게 중요한 타인의 기대, 태도, 또는 평가에 대해 끊임없이 자기 지각을 전개하며 만약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김은하, 1992).

Motemayor와 그의 동료들(1977)은 9세에서 17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개념의 발달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반응범주의 발달적 변화에 근거하여 아동의 자아개념은 인지발달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이다가 점점 더 추상적으로 변화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연령 범위를 유치원 아동까지 확장하여 연구한 Brinthaupt와 Lipka(1985)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적을 수록 자신을 가족관계, 신체적 특성으로 더 기술했으며, 연령이 많아

질수록 연령, 역할, 집단에의 소속감, 인간적인 특성, 성격 등으로 기술하는 경향을 보였다.

Damon과 Hart(1982)는 자아의 발달적 과정에는 개인차가 있음을 지적했다. 개개인의 특정한 역사, 재능, 흥미, 성, 세대간 차이, 사회적 배경 등이 다르며, 또한 이러한 변인들의 상호작용으로 개개인의 자아개념 발달 양상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 발달 경향은 아동 초기에는 물리적 자아로 아동 중기와 후기에는 행위적 자아로 청소년 전기에는 사회적 자아로 청소년 후기에는 심리적 자아로서 주로 자기를 정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김정규(1991)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타인과의 심리적 관계 속에서 어린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을 성장·촉진시키는 조건으로써 부모나 교사의 수용·존중·공감·비 강요적 의견 제시 및 비 위협적 태도 등을 들고 있으며, 성장 억제적 조건으로는 비 일관성·비판·거부·방임·과잉기대·통제·행동한계의 불분명 및 무관심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아개념은 초기의 중요한 주변 인물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달해 나가며, 긍정적인 경험 축적으로 더욱 확장되고 강화되며, 건전하게 실현되어 간다. 그리고 김승현(1996)은 한번 형성된 자아개념은 쉽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학교의 장면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자아개념이 형성 초기부터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적 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한다.

2) 자아개념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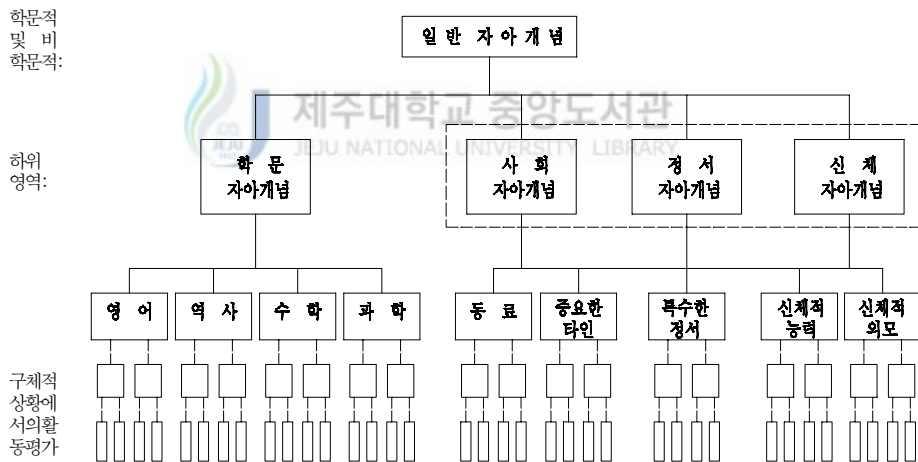
집단미술상담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개념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자아개념의 구조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탐색되었으며, 국내에서

는 송인섭(1982, 1984, 1989)에 의해서 깊이 있게 연구되어 왔다. 특히 Marsh, Byrne, Shavelson(1988)은 자아개념의 다차원적 구조를 전제하지 않으면 자아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고까지 하였다.

Shavelson, Hubner, Stanton(1976)등은 자아개념이란 구인을 타당화하기 위한 연구에서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을 분할하여 그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자아개념의 위계적 조직을 모형화하였다.

이 모형은 자아개념을 정점으로 학업적 자아개념과 비학업적 자아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학업적 자아개념은 하위영역으로 교과목 자아개념 곧 국어, 역사, 수학, 과학을 포함하고 있다. 비학업적 자아개념에는 사회적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개념을 포함시켰다. 이들이 제시한 자아개념의 위계적 구조 모형은 [그림Ⅱ-1] 과 같다.



[그림Ⅱ-1] 자아개념의 위계적 구조에 관한 가설적 모형

(출처 : Shavelson, Hubner, Stanton, 1976)

한편, 정보현(1991)도 자아개념을 하위영역으로 분할될 수 있는 다면적이며 위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학업적 자아개념으로 공부 전반에 관한 자아와 특정교과(국어, 수학에 한정함)에 관한 자아.

둘째, 사회적 자아개념으로 중요인물(부모나 가족 및 교사)과의 관계와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 관한 자아.

셋째, 정의적 자아개념으로 정서적 경향 및 적응성에 관한 자아와 이상적·도덕적 성격에 관한 자아.

넷째, 신체적 자아개념으로 신체 및 외모에 관한 자아와 신체 능력(운동과 놀이 재능)에 관한 자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정보현이 제시한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을 참고하여 집단미술상담이 자아개념 및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인 학업적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3. 집단미술상담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미술상담은 작품의 미적 가치에 대한 평가보다 개인의 상상력과 독특한 개성을 중요하게 평가함으로써 특히 자아개념 발달에 중요한 유아기나 아동초기의 긍정적 자아상 형성에 도움을 준다(한국미술치료학회, 1997).

미술상담을 적용해서 자아개념을 연구한 경우를 보면, 최외선·전미향(1996, 1998)의 미술기법을 이용한 집단상담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와 집단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효과에서 집단미술상담 후 자아정체감 및 자기존중감 그리고 사회적응력이 향상되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또한 남현우·이지현(1999)의 집단 미술치료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증진과 박주연·백은

희(1999)의 자기표현 미술활동이 정서장애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에서 내담자들의 자아개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를 거두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내담자의 원만한 발달을 돕기 위해서 미술상담이 학교상담이나 가족상담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동 또는 청소년의 문제를 완화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집단미술상담을 통해 아동의 자아개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로 양적 검사 도구인 정보현(1991)의 ‘초등학교용 자아개념 검사’와 양적 통계로만 분석할 때 놓치기 쉬운 제한점을 다소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분석으로 ‘K-HTP(동적-집·나무·사람)검사’를 사용하였다.

K-HTP(동적-집·나무·사람)검사는 Burns(1987)가 기존의 HTP(집·나무·사람)그림검사에 동작성을 가미시켜 만든 심리검사로서 HTP 검사보다 역동성이 있다. 로-샤검사, TAT검사 등과 같이 ‘사람이 구조화되지 않은 자극에 의미를 부여해서 구조화할 때 자신의 동기, 갈등, 생활 양식을 표현한다’는 투사법 이론에 근거(김동연·공마리아, 2000)하여 진단 도구로 많이 활용되며 사전, 사후검사에도 유용하다. 피검자 자신의 심적인 갈등이나 증상 등을 자신이 그리는 그림에 투사함으로써 현재의 자아 상태 및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남현우·이지현(1999)의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증진의 연구에서도 11회기의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후 K-HTP검사를 사용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전·사후 자아개념의 변화 차이를 알아보고 K-HTP상의 변화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K-HTP검사를 정보현(1991)의 ‘초등학교용 자아개념 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한 후 집단미술상담을 받은 아동의 심리 상태 및 자아개념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K-HTP검사의 활용방법 등은 본 연구 제 3장 연구방법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 실시에 따른 연구대상, 연구설계, 연구절차, 측정도구, 자료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서귀포시 소재 S초등학교 4학년 12명이었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4학년 전체 18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현(1991)이 개발한 자아개념 검사지로 미리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상, 하 각각 25%에 속하지 않는 아동중 24명을 선정하고, 이들 24명 가운데 상담을 희망하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아동 12명을 상담 집단으로 하고, 나머지 12명을 비교집단으로 하였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집단미술상담을 적용한 상담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비교집단을 비교하여, 실험처치의 효과를 검증하는 전후검사 통제집단 설계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이다. 실험설계를 나타내면 <표Ⅲ-1>과 같다.

<표Ⅲ-1> 실험설계

상담집단	O ₁	X	O ₂	O ₅
비교집단	O ₃		O ₄	

O₁ , O₃ : 사전검사

O₂ , O₄ : 사후검사

X : 집단미술상담의 적용

O₅ : 추후검사

3. 연구 절차

1) 연구의 진행 절차

본 연구는 사전검사,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구성, 집단미술상담의 적용, 사후검사, 추후검사,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현(1991)의 자아개념 검사지로 사전검사를 하였다. 1주 후 상담집단에 Burns(1987)의 K-HTP(동적- 집·나무·사람검사)사전검사를 실시하고, 2000년 10월 21일(토)부터 11월 25일(토)까지 집단미술상담 13회기(1회 소요시간 90~100분)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회기에 동일한 검사지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를 하여 집단미술상담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달 후 2000년 12월 23일(토)에 상담집단만 추후검사를 하여 집단미술상담을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향상된 자아개념 점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비교집단에게는 상담기간 중 자율학습을 시켰다.

2) 집단미술상담 프로그램

한국미술치료학회(2000)의 자아개념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토대로 연구대상 아동에 알맞게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집단미술상담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 내용은 <표Ⅲ-2>와 같다.

<표Ⅲ-2> 집단미술상담 프로그램

단계	회기	주제	활동 목표	준비물	자아개념과의 관련
초기 단계	1	*참가자 및 프로그램 소개, 사전 KHTP검사, 서약서 작성		서약서, 필기구, A4용지	
	2	*나를 광고해 보자 (플라쥬)	*자신의 장점 표현으로 자신을 이해, 수용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타인의 감정도 존중할 줄 안다.	잡지, 가위, 썬트지, 펜, 크레파스, 풀	학업·사회·정서·신체
탐색 단계	3	*자소상 만들기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자존감을 높인다.	지점토, 고무찰흙	정서·신체
	4	*나의 학교 생활은?(학교생활화 KSD 그리기)	*학교 생활 및 교우관계를 재확인하며, 바람직한 학교 생활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A4용지, 필기구	학업·사회·정서
실행 단계	5	*내가 보는 나, 남이 보는 나(빈 상자 꾸미기)	*자신의 외면과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며, 자기 자신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상자, 색종이, 가위, 풀 등	학업·사회·정서·신체
	6	*나는 국가대표 선수(상상화)	*자기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고 자신감을 증진시킨다.	썬트지, 크레파스 등	정서·신체
	7	*나의 소망은?(자신을 씨앗으로 표현하기)	*자기 욕구를 인식하고 자기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	썬트지, 크레파스 등	사회·정서
	8	*동물가족화 그리기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및 관계를 개선한다.	A4용지, 필기구	사회·정서
	9	*기뻐던 일, 슬펐던 일 그리기	*자기 정서를 이해하고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	A4용지, 필기구	사회·정서
	10	상상의 나라(이야기 듣고 뒷부분 상상하여 나타내기)	*자기 정서를 이해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인다.	크레파스, 화지 등	사회·정서
	11	나는?(자신의 모든 것 플라쥬로 나타내기)	*자기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고 자신감을 증진시킨다.	썬트지, 전지, 크레파스 등	학업·사회·정서·신체
종결 단계	12	우리가 만드는 세상은?(협동화)	*자기존중감 향상, 사회적응력 향상, 자기 삶에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썬트지전지, 크레파스	사회·정서
	13	*마무리하기, 사후검사, 수료식		필기구, A4용지	

4.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집단미술상담을 통해 아동의 자아개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로 양적 검사 도구인 정보현(1991)의 ‘초등학교용 자아개념 검사’와 양적 통계로만 분석할 때 놓치기 쉬운 제한점을 다소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분석으로 ‘K-HTP(동적-집·나무·사람)검사’를 사용하였다.

1) 자아개념 검사

본 연구에 양적 검사도구로 사용한 자아개념 검사는 정보현(1991)이 제작한 ‘초등학교용 자아개념 검사’이다. 본 검사는 총 64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형식은 Likert 4단계 척도로 되어 있어 피검자는 각 진술문을 읽고 자기 자신과 관련된 정도에 따라 ●표 하면 된다. 각 문항은 4점씩이다. 채점 방법은 모두 긍정적인 진술문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계산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자아개념의 네 가지 하위영역별 내용과 신뢰도 및 관련 문항번호는 <표Ⅲ-3>과 같다.

<표Ⅲ-3> 자아개념 검사의 영역별 관련문항 및 신뢰도

관련문항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관련문항번호	재검사 신뢰도
학업적 자아개념	공부전반	8	1, 9, 17, 25, 33, 41, 49, 57	.75
	특정교재	8	2, 10, 18, 26, 34, 42, 50, 58	.78
사회적 자아개념	중요인물	8	3, 11, 19, 27, 35, 43, 51, 59	.77
	또래친구	8	4, 12, 20, 28, 36, 44, 52, 60	.82
정서적 자아개념	정서적응성	8	5, 13, 21, 29, 37, 45, 53, 61	.74
	성격	8	6, 14, 22, 30, 38, 44, 52, 60	.76
신체적 자아개념	신체외모	8	7, 15, 23, 31, 39, 47, 55, 63	.76
	신체능력	8	8, 16, 24, 32, 40, 48, 56, 64	.81

자아개념 및 자아개념의 하위영역별 내용 및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아개념

자아개념은 총자아개념의 의미이며,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의 하위 영역인 학업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개념의 영역에서 얻은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2) 학업적 자아개념

자신의 능력과 학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점수가 높은 아동은 자신의 능력과 학업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갖고 있는 반면에, 낮은 아동은 자신의 능력과 학업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으며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적 자아개념

이른바 중요한 타인인 부모와 교사 및 또래와의 인간 관계에서 자신이 보는 관념체제를 나타낸 것으로, 한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된 지각을 말한다. 따라서 이 점수가 높은 아동은 대인 관계에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낮은 아동은 대인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거나 제외된 불행한 인간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4) 정서적 자아개념

자신의 정서적 반응성, 이상성, 도덕성, 성격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나타낸다. 이 점수가 높은 아동은 안정되어 있고 바람직한 성격특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낮은 아동은 불안정하고 자신에 대해 무가치적인

성향이 강한 심리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5) 신체적 자아개념

자신의 신체와 외모 그리고 운동 능력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점수가 높은 아동은 자신의 신체적 상태나 능력에 대해 만족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반면에, 낮은 아동은 불만족과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K-HTP(kinetic-house · tree · person)검사

집단미술상담을 양적 통계로만 분석할 때 놓치기 쉬운 제한점을 다소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분석으로 K-HTP(동적-집·나무·사람)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Burns(1987)가 기존의 HTP그림검사에 동작성을 가미시켜 만든 심리검사로서 HTP(집·나무·사람)검사보다 역동성이 있다. 진단 도구로 많이 활용되며 사전, 사후검사에도 유용하다. 피검자가 자신의 심적인 갈등이나 증상 등을 자신이 그리는 그림에 투사함으로써 현재의 자아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1) 집(house) : 피검자의 가정생활과 가족관계의 과거·현재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또는 미래에 대한 욕구 등을 투사하며, 개인생활의 물리적 측면까지 반영한다(학업적 자아, 사회적 자아와 관련).

(2) 나무(tree) : 피검자의 개인적 변화 과정 및 자신의 태도, 가치관 등 자아상태를 투사한다(정서적 자아, 학업적

자아와 관련).

(3) **사람(person)**: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자신의 적응도, 활동적인 인간 관계, 신체에 대한 이미지 등을 투사하며, 나무와 상호작용 하므로써 피검자의 자아 기능을 더 많이 반영해 준다(신체적 자아, 사회적 자아와 관련).

검사 방법은 21×27cm(또는 A4용지) 종이 한 장과 연필(4B)을 피검자와 수평이 되도록 제시하면서 “집, 나무,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의 전체 모습을 그리시오. 이 때 만화나 막대 모양으로 그리지 말고 사람 진신을 그리도록 하시오.”라고 지시한다.

5. 자료처리



1) 자아개념 검사

spss/pc+ 통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첫째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동질성을 t검증하였고, 둘째 집단미술상담을 실시한 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사후검사 비교를 위한 t검증을 하여 $p < .01$ 과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셋째 사후검사 한 달 후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집단미술상담을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 효과가 있는지 사후검사와 비교를 위한 t검증을 하였다.

2) K-HTP(kinetic-house, tree, person)검사

Burns의 ‘K-HTP(동적-집·나무·사람)검사’(1998)와 김동연·공마

리아의 ‘인물화 및 집·나무·사람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법’(2000)에 의하여 분석 및 해석을 해서 사전·사후 비교를 하였다.

K-HTP검사의 분석은 피험자가 그리는 방법과 스타일을 검토하고, 그림에 나타난 상징과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데, 모든 연구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검사시의 태도와 소요시간, 그리는 순서, 크기, 위치, 필압과 선의 농담, 스트로크(stroke), 지우개 사용 빈도, 대칭성, 방향, 세부묘사, 생략과 왜곡, 절단, 그림자와 음영, 투시성, 원근법, 운동, 지면의 선, 기타의 표시 등은 그림을 해석하고, 상징과 해석을 결부시키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리고 피험자가 그린 집, 나무, 사람의 분석은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 (1) 집 : 집 및 지붕의 방향과 형태, 창문과 문의 크기 및 유무, 집의 안정감, 울타리의 유무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 (2) 나무 : 나무 줄기 및 수관의 크기, 안정감, 튼튼함, 잎과 열매의 유무, 나무의 웅이 유무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 (3) 사람 : 신체의 완성도, 인물의 방향 및 위치, 활동성, 얼굴 표정, 다리와 발의 안정감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 (4) 기타 : 태양의 유무, 기저선의 유무, 스트로크, 그림 순서, 그림 간 거리, 전체 분위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미술상담이 아동의 자아개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에 따라 t검증에 의해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개념 사전·사후·추후검사의 차이를 비교·검증하여 집단미술상담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질적 분석으로 K-HTP검사를 사용하여 아동의 자아 상태 및 심리 상태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1.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 검증

집단미술상담을 실시하기 전에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개념 사전검사의 평균(M)과 표준편차(SD) 및 t검증을 통하여 동질성을 <표IV-1>과 같이 알아보았다.

<표IV-1>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사전검사 차이 검증

영역	구분(N=12)	M	SD	t
학업적 자아	상담집단	40.17	6.26	.990
	비교집단	37.58	6.52	
사회적 자아	상담집단	47.83	5.97	.265
	비교집단	47.25	4.77	
정서적 자아	상담집단	38.67	8.17	-.102
	비교집단	39.00	7.86	
신체적 자아	상담집단	36.58	4.89	-.100
	비교집단	36.92	10.46	
총 자아개념	상담집단	163.25	17.98	.289
	비교집단	160.75	2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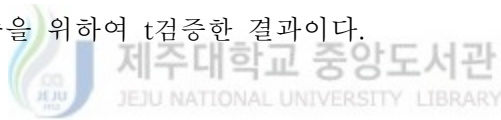
위의 <표IV-1>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개념의 어떤 영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은 사전에 자아개념이 동질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2. 가설 검증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 집단미술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자아개념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다음 <표IV-2>는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개념의 사전·사후 검사 시간 차이 검증을 위하여 t검정한 결과이다.



<표IV-2>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개념 검사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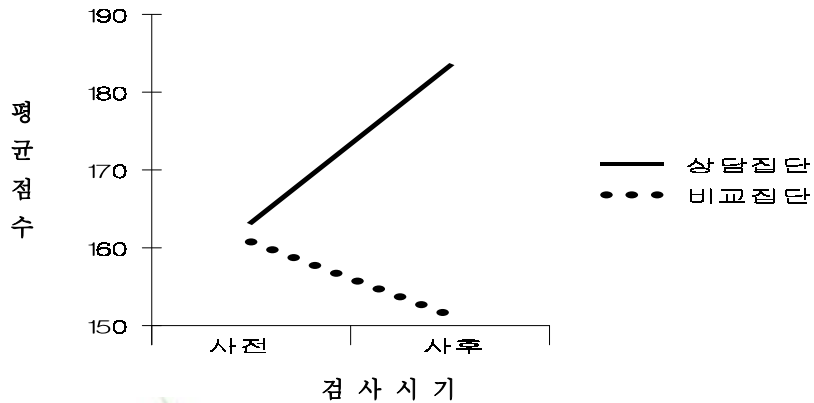
구분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t
	M	SD	M	SD	
상담집단 (N=12)	163.25	17.98	183.42	28.77	3.203**
비교집단 (N=12)	160.75	23.99	151.33	21.11	-1.490

** : p<.01

위의 <표IV-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개념의 사전·사후검사를 비교해 보면 집단미술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평균점수가 163.25에서 183.4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t=3.203, p<.01$)하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집단미술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자아개념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라고 한 가설 1이 검증

되었다.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 평균은 160.75에서 151.33으로 오히려 낮아졌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이상에서 나타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개념 사전·사후 평균점수의 변화를 도식화하면 [그림IV-1]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IV-1] 상담·비교집단의 사전·사후 자아개념 점수 비교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 집단미술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자아개념 하위영역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 2-1 학업적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 2-2 사회적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 2-3 정서적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 2-4 신체적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1)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학업적 자아개념 차이 검증

다음 <표IV-3>은 상담집단과 비교 집단의 자아개념의 하위영역 가운데 학업적 자아개념의 사전·사후 검사간 차이 검증을 위하여 t검정한 결과이다.

<표IV-3>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학업적 자아개념 검사 결과 비교

영역		구분			사후		
		M	SD	t	M	SD	t
학업적 자아	상담집단 (N=12)	40.17	6.26	.990	46.17	9.37	2.750*
	비교집단 (N=12)	37.58	6.52		36.75	7.28	

* : p<.05

위의 <표IV-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학업적 자아개념 사전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상담집단의 학업적 자아개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750, p<.05)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가설 2-1이 검증되었다. 즉 집단미술상담을 받은 상담집단은 학업적 자아개념 평균이 40.17에서 46.17로 향상되었고, 비교집단은 37.58에서 36.75로 오히려 낮아졌다(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이는 집단미술상담을 받은 아동이 자신의 능력과 학업에 대하여 자신감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낸다.

(2)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회적 자아개념 차이 검증

다음 <표IV-4>는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개념의 하위영역 가운데 사회적 자아개념의 사전·사후 검사간 차이 검증을 위하여 t검정한 결과이다.

<표IV-4>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회적 자아개념 검사 결과 비교

영역		구분			사후		
		M	SD	t	M	SD	t
사회적 자아	상담집단 (N=12)	47.83	5.97	.265	50.83	6.77	2.377*
	비교집단 (N=12)	47.25	4.77		44.83	5.54	

* : p<.05

위의 <표IV-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회적 자아개념 사전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상담집단의 사회적 자아개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377, p<.05)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가설 2-2가 검증되었다. 즉 집단미술상담을 받은 상담집단은 사회적 자아개념 평균이 47.83에서 50.83으로 향상되었고, 비교집단은 47.25에서 44.83으로 오히려 낮아졌다(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이는 집단미술상담을 받은 아동이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정도 및 중요한 타인인 부모와 교사, 또래 등과의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낸다.

(3)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정서적 자아개념 차이 검증

다음 <표IV-5>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개념의 하위영역 가운데 정서적 자아개념의 사전·사후 검사간 차이 검증을 위하여 t검정한 결과이다.

<표IV-5>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정서적 자아개념 검사 결과 비교

영역		구분			사후		
		M	SD	t	M	SD	t
정서적 자아	상담집단 (N=12)	38.67	8.17	-.102	45.50	7.70	3.060**
	비교집단 (N=12)	39.00	7.86		36.75	6.22	

** : p<.01

위의 <표IV-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정서적 자아개념 사전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상담집단의 정서적 자아개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060, p<.01$)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가설 2-3이 검증되었다. 즉 집단미술상담을 받은 상담집단은 정서적 자아개념 평균이 38.67에서 45.50으로 향상되었고, 비교집단은 39.00에서 36.75로 오히려 낮아졌다(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이는 집단미술상담을 받은 아동이 정서적 반응성, 이상성, 도덕성과 자신을 가치롭게 느끼는 성향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낸다.

(4)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신체적 자아개념 차이 검증

다음 <표IV-6>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개념의 하위영역 가운데 신체적 자아개념의 사전·사후 검사간 차이 검증을 위하여 t검증한 결과이다.

<표IV-6>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신체적 자아개념 검사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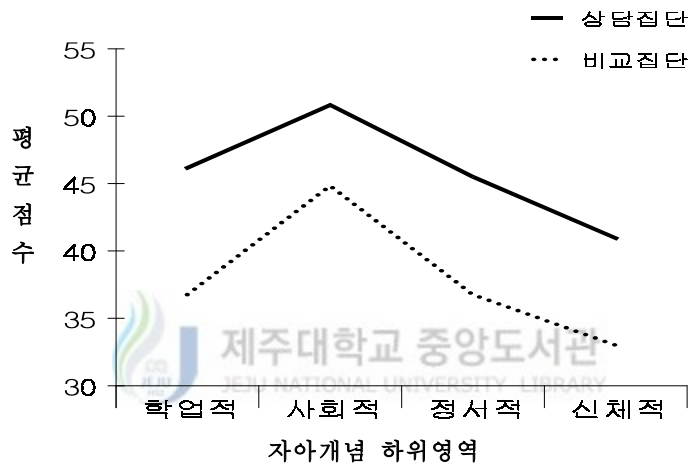
영역		구분		사전			사후		
		M	SD	t	M	SD	t		
신체적 자아	상담집단 (N=12)	36.58	4.89	-.100	40.92	9.37	2.169*		
	비교집단 (N=12)	36.92	10.46		33.00	9.12			

* : $p<.05$

위의 <표IV-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신체적 자아개념 사전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상담집단의 신체적 자아개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169, p<.05$)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가설 2-4가 검증되었다. 즉 집단미술상담을 받은 상담집단은 신체적 자아개념 평균이 36.58에서 40.92로 향상되었고, 비교집단은 36.92에서 33.00으로 오히려 낮아졌다(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이는 집단미술상담을 받은 아동이 자신의 신체와 외모 그리고 운동능력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나타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개념의 하위영역별 사후 검사 결과의 변화를 도식화하면 [그림Ⅳ-2]와 같다.



[그림Ⅳ-2] 상담·비교집단의 자아개념 하위영역별 점수 변화 비교

위 [그림Ⅳ-2]는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개념 하위영역별 사후 검사 결과 평균점수를 비교한 것이다. 집단미술상담을 받은 상담집단의 평균점수가 비교집단에 비하여 하위영역 모두에서 향상되었다.

3) 상담집단의 자아개념 사후·추후검사 결과 비교

<표Ⅳ-7>은 사후검사 한 달 후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집단미술상담

을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상담집단의 자아개념에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사와 비교를 위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Ⅳ-7> 상담집단의 자아개념 사후·추후 검사 결과 비교

영역		구분(N=12)	M	SD	t
학업적 자아	사후		46.17	9.37	.664
	추후		47.42	8.40	
사회적 자아	사후		50.83	6.77	.153
	추후		51.17	7.88	
정서적 자아	사후		45.50	7.70	.929
	추후		47.33	7.50	
신체적 자아	사후		40.92	8.76	.348
	추후		41.33	8.73	
총 자아개념	사후		183.42	28.77	.745
	추후		187.25	28.74	

위의 <표Ⅳ-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담집단의 사후·추후검사 결과 자아개념 점수간에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없다. 따라서 집단미술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집단미술상담을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향상된 자아개념 점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4) 상담집단의 사전·사후 K-HTP검사 결과 비교

Burns(1998)의 K-HTP(동적-집 나무 사람)검사와 김동연·공마리아의 인물화 및 집-나무-사람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법(2000)에 의하여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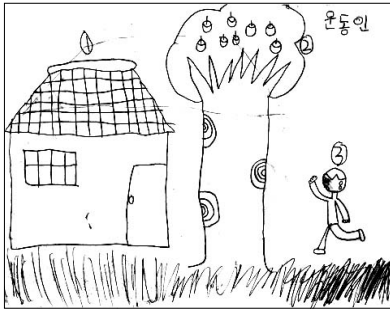
석 및 해석을 해서 사전·사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별 비교는 부록 4 참조).

<표Ⅳ-8> 상담집단의 사전·사후 집·나무·사람 등의 특징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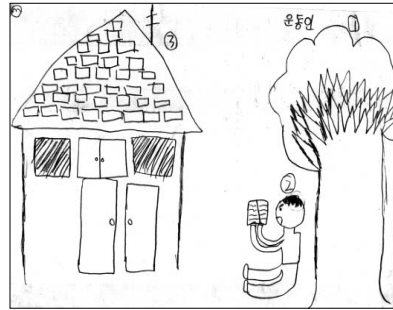
결과비교 영역	상담전	상담후	분석 및 결과
집	*집 모양이 불안하고 지붕 위의 무늬가 복잡함.	*집 모양이 안정되고 집의 크기가 커졌음. *지붕 위의 복잡한 무늬가 없어짐. *창문의 개수가 많아짐.	*안정되고 가정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짐. *억압된 불안이 없어짐 *외부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짐
나무	*나무 줄기에 옹이나 새 둥지가 있음 *나무 가지가 뽕죽함	*나무 줄기 및 수관이 튼튼해짐. *나무 줄기에 옹이나 새 둥지가 없어짐	*자아의 성장 에너지가 강해짐.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고 독립심이 생김.
사람	*긴장된 모습을 보임. *힘든 모습이 보임.	*활동성이 많아지고 표정이 밝아짐. *두 다리가 안정감 있게 그려짐.	*사회적응력이 높아지고 활동적이며, 자아가 안정됨.
기타	*필압이 약함. *기저선 및 복잡한 스트로크(stroke)가 있음 *집 둘레에 울타리가 있음.	*필압이 강해짐. *기저선 및 복잡한 스트로크(stroke)가 없어짐. *전체 분위기가 밝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뀜.	*에너지 및 자아가 강해짐. *불안감이 없어짐. *대인관계 및 외부에 대한 개방이 좋아짐.

<표Ⅳ-8>에서 K-HTP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상담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를 비교하였는데, 대부분의 아동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심리 상태 및 자아 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상담집단에 참가했던 한 아동의 K-HTP 비교 분석·해석을 아래에 예시하고자 한다.

<예시>



[그림 IV-3] K-HTP사전검사



[그림 IV-4] K-HTP사후검사

K-HTP의 분석 기준은 제 Ⅲ장 연구 방법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그림의 사전·사후에 변화된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 및 해석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연구자가 내린 분석 및 해석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연구자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1) 집(학업적 자아, 사회적 자아와 관련)

- 사전검사에서 지붕의 그물 무늬로 억압된 강한 의식과 수반된 죄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사후검사에서는 지붕의 무늬가 느슨해져서 억압된 감정이 많이 해소되었다.
- 벽의 선은 자아의 강함과 관계 있는데, 사전에 비해서 사후에 필압이 강해진 것으로 보아 자아의 힘이 강해졌다.
- 창문과 문은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대인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후에서 갯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아 외부에 대한 개방 및 대인 관계가 좋아졌다.
- 사후에 집의 크기가 커지고 튼튼해진 것으로 보아 가정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졌다.

(2) 나무(정서적 자아, 학업적 자아와 관련)

- 나무줄기의 용이는 심리적 외상의 경험을 나타내는데, 사후에 용이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 심리적으로 치유되었다.
- 나무 열매는 강한 의존욕구 및 유아기의 고착을 나타내는데, 사후에 없어져서 독립적인 자아 의식이 향상되었다.
- 그러나 줄기 끝이 가시처럼 예리하게 표현된 것은 변화가 없는 데, 비판성·감수성이 강하며 공격적임을 나타낸다.

(3) 사람(신체적 자아, 사회적 자아와 관련)

- 사람의 크기는 피검자의 자존심과 활동성을 나타내는데, 사후에 조금 커져서 자기 존중감 및 활동성이 높아졌다.
- 땀을 흘리며 달리는 인물상은 불유쾌한 상황에서 도피하려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 또는 히스테리적인 충동성을 나타내는데, 사후에는 나무에 기대어서 독서하는 안정된 자기상을 그리고 있다.

(4) 기타

- 그림 아래에 짧고 어지러운 선(stroke)은 불안감 및 충동적·공격성을 나타내는데, 사후에는 깨끗이 없어졌다.
- 그림을 그린 순서는 사전에 집→나무→사람에서, 사후에 나무→사람→집으로 바뀌었는데, 사후에 나무를 먼저 그린 것으로 보아 자아 의식이 강해졌다.

V. 요약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요약, 결론,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상담을 실시하여 아동의 자아개념 향상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집단미술상담이 아동의 자아개념 향상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가?

둘째, 집단미술상담이 아동의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인 학업적 자아개념, 사회적 자아개념, 정서적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개념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집단미술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자아개념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집단미술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자아개념 하위영역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1 학업적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2 사회적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3 정서적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2-4 신체적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귀포시 S초등학교 4학년 180명을 대상으로 자아개념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자아개념 진단검사 결과 상, 하 각각 25%에 속하지 않는 아동 중 24명을 선정하였다. 이들 24명 가운데 상담을 희망하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아동 12명을 상담 집단으로 하고, 나머지 12명을 비교집단으로 하였다.

본 연구자는 한국미술치료학회(2000)의 자아개념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토대로 연구대상 아동에 알맞게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였다. 상담집단은 사전검사 실시 후 주당 2~3회씩 5주에 걸쳐 총 13회기(1회 소요시간 90분~100분)의 집단미술상담을 실시한 후 사후검사를 하여 집단미술상담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과 자아개념 검사결과를 비교하였다. 또 상담집단만을 대상으로 사후검사 한 달 후 추후검사를 실시해서 집단미술상담을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구는 정보현(1991)이 제작한 ‘초등학교용 자아개념 검사’를 사용하였다. spss/pc+ 통계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여, 첫째,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동질성을 t검증하였고, 둘째 집단미술상담 후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사후검사 결과 비교를 위한 t검증을 실시하여 $p < .01$ 과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셋째 상담집단은 사후검사 한 달 후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집단미술상담을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효과를 미치는지 사후검사와 비교를 위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질적 검사로 Burns(1998)의 K-HTP(동적·집·나무·사람)검사와 김동연·공마리아(2000)의 인물화 및 집·나무·사람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법에 의하여 상담집단의 K-HTP를 분석 및 해석을 해서 사전 사후 비교로 심리상태 및 자아개념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사전·사후 자아개념 평균점수가 163.25에서 183.4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t=3.203, p<.01$)하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집단미술상담이 아동의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이 검증되었다.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 평균은 160.75에서 151.33으로 오히려 낮아졌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집단미술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자아개념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사후검사 평균점수가 유의한 차이로 향상되었다. 분석결과 학업적 자아개념 평균점수는 40.17에서 46.17($t=2.750, p<.05$)로, 사회적 자아개념 평균점수는 47.83에서 50.83($t=2.377, p<.05$)으로, 정서적 자아개념 평균점수는 38.67에서 45.50($t=3.060, p<.01$)으로, 신체적 자아개념 평균점수는 36.58에서 40.92($t=2.169, p<.05$)로 네 개의 하위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집단미술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자아개념 하위영역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라는 가설 2도 검증되었다.

또한 집단미술상담 각 회기별 활동 내용과 K-HTP(동적·집·나무·사람)검사에 따른 질적 분석 및 해석에서도 상담집단의 심리 상태 및 자아 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2.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상담은 아동의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가 있다. 박주연·백은희(1999)의 자기표현 미술활동이 정서장애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와 남현우·이지현(1999)의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증진 연구에서 미술활동이 아동의 자아개념 향상에 영향력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자아개념의 형성 초기에 있는 일반 아동의 자아개념 향상에도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집단미술상담은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인 학업적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가 있다. 집단미술상담 후 아동들이 자신의 능력과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어 학습참여도 및 발표력도 좋아졌다.

셋째, 집단미술상담은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인 사회적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가 있다. 집단미술상담 후 아동들이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좋아졌고, 중요한 타인인 부모와 교사, 친구 등에 대한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었다.

넷째, 집단미술상담은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가 있다. 집단미술상담 후 아동들이 억압된 불안감이 없어져 안정되었고 적절히 자기 정서 표현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을 가치롭게 느끼는 성향이 향상되었다.

다섯째, 집단미술상담은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인 신체적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가 있다. 집단미술상담 후 아동들이 자신의 신체와 외모 및 운동 능력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며 만족감과 기대감이 향상되었다.

여섯째, 특히 정서적 자아개념이 다른 하위영역보다 1%의 유의수준 ($t=3.060, p<.01$)에서 평균이 38.67에서 45.50으로 크게 향상되어 집단미술상담은 특히 아동의 인지적 측면보다 정서적 측면에 더욱 큰 효과가 있다.

3.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김동연·이성희(1997) 및 박주연·백은희(1999) 등의 연구에서 미술활동이 아동의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며, 특히 정서적 자아개념의 향상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이론과 일치함을 보였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에서는 신체적 자아개념의 향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로 자아개념의 긍정적인 향상을 보였는데, 연구자가 본 미술활동 프로그램에 신체적 자아개념과 관련된 활동을 의도적으로 삽입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져 이에 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자아개념의 형성 초기인 4학년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으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전인교육 즉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집단미술상담 등 자아개념 향상 프로그램을 교육현장에서 적극 연구·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현숙(2001). 교사의 지도성 유형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곽형식·김대진(1999). “청소년 자아성장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통권 9, 한국미술치료학회.
- 김동연 외(1998). “미술치료가 아동의 우울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 연구」 통권 7, 한국미술치료학회.
- 김동연·공마리아(2000). 인물화에 의한 집·나무·사람그림에 의한 심리진단법, 한국미술치료학회.
- 김동연·정현희(2000). 동그라미 중심가족화에 의한 심리진단과 치료, 대구대학교출판부.
- 김동준(2000). 집단미술상담이 아동의 교우관계 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보경(1998). 미술치료적 기능을 통한 그림심리진단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봉소(1975). 청년기의 자아개념, 사회적 태도 및 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김승현(1996). 교우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용호(1999). 자기성장 집단프로그램이 자아개념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영(2000).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부적응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하(1992).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의 지도력 유형과 자아개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재은(1993).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서울 : 교육과학사.
- 나카니시 요시오(1998). 그림으로 읽는 아이들 마음, 서울 : 사계절.
- 남현우·이지현(1999). “집단 미술치료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자

- 아개념 증진”, 「미술치료연구」 통권 9, 한국미술치료학회.
- 박연주(1992).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지도성 행위와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박주연 외(1999). “자기표현 미술활동이 정서장애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통권 9, 한국미술치료학회.
- 백양희(1998). “자신감이 결여된 아동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통권 8, 한국미술치료학회.
- 송인섭(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양서원.
- 오정미(2000). 인간관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립아동의 자아개념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혜정(1997). 아동의 그림검사에 나타난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희준(1984). 수업풍토와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금화(2000). 표준체중아동과 비만아동의 성격특성 및 자아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장호(1998). 상담 심리학, 서울 : 박영사.
- 이효실(1997). 미술활동 프로그램이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은영(1988). 교사-학생 상호작용 환경이 학생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보현(1991). 국민학교용 자아개념검사의 제작과 요인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복희(1996). 발달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 승(1997). 미술활동을 통한 소집단 협동학습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

- 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외선 외(1998).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통권7, 한국미술치료학회.
- 한국미술치료학회(2000).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 : 동아문화사.
- 하영미(1997). 초등학교 미술과 협동제작 활동을 통한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황정규(1988).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R. Burns(1998). KHTP 동적 집 · 나무 · 사람그림검사, 하나 의학사.
- Combs, A. & Snygg, D.(1959). *Individual behavior : A perceptual approach to behavior*. N. Y. : Harper & Brothers.
- Conviction, M. V. & Omelich, C. L.(1981). As Failures Munt : Affective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bility Emotion in the Classroom, *Journal of Psychology* 73, 796-808
- Damon, W. & Hart, D.(1982) The Development of Self-Understanding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 James, W.(1890).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 Holt.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Rogers, C. R.(1951). *client-centered therapy : Its current practice, implications, and theory*. Boston : Houghton Mifflin.
- Shavelson, R. J., Hubner, J. J., & Staton, J. C.(1976). Self-concept :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20.
- Shavelson, R. J., & Bolus, R.(1982). Self-concept : The interplay of theory and method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to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
- Ulman. E.(1977). Art education for the emotionally disturbed. *American Journal of Art Therapy*, 17.

<Abstract>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the Improvement of the Children's Self- Concept

Kang, Kyung-suk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soo

This thesis aim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Group Art Therapy(GAT) on the children's self-concept and its subscales which are consist of academic self, social self, personality self and physical self.

The research tasks for achieving this purpose are: a) the experimental group's self concept will be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b) the experimental group's academic self, social self, personality self and physical self will be significantly improved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subjects in this study are 24 children who are fourth grade in an elementary school. In the pretest the self-concept test was conducted to 180 fourth grade children in S elementary school in Seogwipo city. After the pretest the top- and lowest-rated group were excluded, and finally 24 children were selected. Among them the experimental group is made up of 12 children who wanted to take part in the counseling program and had time to do it, and th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02.

other 12 children were selected as a control group.

The current GAT is based on the Group Art Therapy which was constructed by Korea Art Therapy Association in 2000, and it is transformed for the children by this researcher.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GAT program about 100 minutes at a time, twice or three times a week for five weeks.

The effects of experimental treatment were measured with "Self-Concept Scale for Children" which was developed in 1991 by Jung Bo-heon. In addition its effects are found by the way of "K-HTP(1998)" by Burns and "Portrait and House, Tree, People(2000)" by Kim Dong-yon & Kong Maria.

The resultant data were used by the spss/pc+ program for t-tes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AT is effective to the improvement of the children's self-concept.

Second, the GAT is effective to the improvement of the children's academic self. The participant children had confidence of study. It shows that the GAT brought the children the increase of study participation and the improvement of expression.

Third, the GAT is effective to the improvement of the children's social concept. The participant children understood better the other people and further improved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Fourth, the GAT is effective to the improvement of the children's personality concept. The participant children reduced their oppressed anxiety and expressed their personal emotion well.

Fifth, the GAT is effective to the improvement of the children's physical concept. The participant children increased the interest in their body, appearance and physical ability.

Sixth, the GAT is most effective to the improvement of the children's personality concept($t = 3.060$, $p < .01$).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GAT is more effective to the children's emotional area than their cognition area.

In conclusion, the GAT program provides the children with self-expression, self-perception and the dynamic interaction in the group activity. As a result, the GAT improves the children's self-concept and self-esteem, which most influence upon their personality.

부 록

<부록 1> 자아개념 진단검사	46
<부록 2> 우리의 약속	50
<부록 3> 집단미술상담의 실제	51
<부록 4> 상담집단의 사전·사후 K-HTP검사 특징 비교 ...	74
<부록 5> 집단미술상담의 회기별 그림	76

<부록 1>

자아개념 진단검사

학교	학년	성별		이름
		남	여	

-일 러 두 기-

이 검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검사입니다. 다음 쪽의 글을 읽어 나가면서 그 글의 내용이 '나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냈는지'를 판단해서 <보기>와 같이 표시하면 됩니다.

이 검사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또한 여러분의 학교 성적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검사의 내용을 잘 읽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0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	○	○	○
0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	●	○	○
0 '대체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	○	●	○
0 '항상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	○	○	●

♣ 글의 내용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같은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안지의 해당되는 칸에 ●표를 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

1.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답해 주세요
2. 한 문제에 한 군데에만 ●표하세요
3. 대답한 것을 고칠 때에는 먼저의 대답은 ×표 해서 지우고, 다시 ●표를 하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학교 성적이 우수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	○	○	○
2	나는 책읽기를 좋아한다.	○	○	○	○
3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	○	○	○
4	나는 친구들을 잘 사귄다.	○	○	○	○
5	나는 마음이 언제나 즐겁고 편안하다.	○	○	○	○
6	나는 무슨 일이든 자신감이 있다.	○	○	○	○
7	나는 내 몸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	○	○	○	○
8	나는 모든 운동을 잘 한다.	○	○	○	○
9	나는 어려운 학교 숙제를 쉽게 풀어나간다.	○	○	○	○
10	나는 수학 공부가 재미있다.	○	○	○	○
11	부모님은 나를 좋아한다.	○	○	○	○
12	나는 친한 친구들이 많다.	○	○	○	○
13	나는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다.	○	○	○	○
14	나는 내 성격을 자랑하고 싶다.	○	○	○	○
15	나는 친구들보다 잘 생긴 편이다.	○	○	○	○
16	나는 달리기나 멀리뛰기 같은 육상을 잘 한다.	○	○	○	○
17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	○	○	○
18	나는 책을 또박또박 그리고 잘 읽는다.	○	○	○	○
19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	○	○	○
20	나는 다른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	○	○	○
21	나는 언제나 침착하게 행동한다.	○	○	○	○
22	나는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	○	○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23	나는 잘 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다.	○	○	○	○
24	나는 철봉이나 기계체조 같은 운동을 잘한다.	○	○	○	○
25	나는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편이다.	○	○	○	○
26	나는 셈하기를 좋아한다.	○	○	○	○
27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	○	○	○
28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	○	○	○
29	나는 수줍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	○	○	○
30	나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	○	○	○	○
31	내 몸집은 튼튼하고 보기 좋게 생겼다.	○	○	○	○
32	나는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잘 한다.	○	○	○	○
33	나는 앞으로 공부를 잘 해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	○	○
34	나는 수학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능력이 있다.	○	○	○	○
35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	○	○	○
3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	○	○	○
37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다.	○	○	○	○
38	나는 예의가 바른 어린이라고 생각한다.	○	○	○	○
39	내 몸은 멋진 편이다.	○	○	○	○
40	나는 몸을 튼튼히 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	○	○	○
41	나는 내가 부족한 과목들을 보충할 수 있다.	○	○	○	○
42	나는 글짓기를 잘 한다.	○	○	○	○
43	담임 선생님은 나를 즐겁게 대해 주신다.	○	○	○	○
44	내 친구들은 나를 믿는다.	○	○	○	○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45	나는 마음이 피로울 때가 거의 없다.	○	○	○	○
46	나는 스스로 착한 어린이라고 생각한다.	○	○	○	○
47	친구들은 내가 잘 생겼다고 말한다.	○	○	○	○
48	내 몸은 건강하다.	○	○	○	○
49	나는 공부를 잘 해 유능한 어린이라고 생각한다.	○	○	○	○
50	나는 수학 성적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	○	○	○
51	우리 선생님은 나를 귀여워 해 주신다.	○	○	○	○
52	나는 친구들이 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	○	○	○
53	나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일이 드물다.	○	○	○	○
54	나는 남자(여자)답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	○	○	○
55	내 몸집은 내가 원하는 만큼 멋있다.	○	○	○	○
56	나는 놀이를 하면 친구들 보다 훨씬 잘 한다.	○	○	○	○
57	나는 주어진 시간에 학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	○	○
58	나는 국어책에 나오는 낱말의 뜻을 잘 안다.	○	○	○	○
59	나는 내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	○	○	○
60	친구들은 나와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	○	○	○
61	나는 나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	○	○
62	나는 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쳐나간다.	○	○	○	○
63	남들은 내가 잘 생겼다고 말한다.	○	○	○	○
64	아픔을 견디어 낼 정도로 내 몸은 단련되어 있다.	○	○	○	○

<부록 2>

우리의 약속

우리는 이 미술활동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느껴보아 나의 장점들을 찾아내고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아래의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1.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2.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가 하겠습니다.
3.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같이 공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4. 상대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5.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겠습니다.
6. 활동을 하고 난 후 뒷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7. 여기서 친구들과 나누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꼭 비밀을 지킵니다.

2000. 10. 21(토)

○○○인

<부록 3>

집단미술상담의 실제

본 연구 과정에서 실시한 집단미술상담 13회기를 요약하였으며, 특히 아동들의 활동 과정과 느낌 나누기 등은 지면 관계로 대표적인 것만 간추려 실었다.

♣ 제 1회기

▶일 시 : 2000. 10. 21. 토

▶목 표 : 참가자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사전검사로 K-HTP(동적-집·나무·사람검사)를 실시한다.

▶주 제 : 참가자 및 프로그램 소개, 사전 검사

▶준비물 : A4용지 1장, 연필, 지우개

▶활동과정

(1) 집단 구성에 대한 안내 및 프로그램 소개

(2) 참가자 소개 및 별칭 짓기

각자 자신을 소개하고, 마음에 드는 별칭으로 고운이, 콩쥐, 경현, 소라, 요정, 바다, 매트릭스, 자연책, 운동인, 꿀뚜기, 만수, 허준 등을 선택하고, 별칭을 짓게 된 이유 등을 발표하였다.

(3) '우리의 약속'을 의논하고 서명('부록 2' 참고)

(4) 사전검사로 K-HTP(동적-집·나무·사람검사)를 실시

준비한 종이를 가로로 제시하며 “여기에 집, 나무, 그리고 뭔가 하는 사람의 전체 모습을 그리시오. 사람의 전체 모습을 그릴 때 만화 혹은 막대 인물상으로 그리지 마세요.” 라고 지시한다.

(5) 발표 및 느낌나누기

같은 학년 아동들로 이미 관계형성이 잘 되어 있어 서로 부담감이

없는 편안한 표정으로, 또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설레는 표정으로 앉아서 K-HTP(동적-집·나무·사람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느낌을 나누었다.

상담자가 자신이 그린 ‘집·나무·사람’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자 서슴없이 말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운동인 : 더워서 그늘에서 쉬려고 함.
- 소 라 : 아이가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서 싫음.
- 자연책 : 집에서 나와서 나무 밑에서 자연책을 읽고 있음. 연못 속에 물고기들은 간수를 잘 못해서 모두 죽고 한 마리만 남았음.

아동 모두 ‘공부시간에는 틀릴까봐 발표하기가 쑥스러웠는데 ‘편안했다’ ‘재미있다’ ‘같이 활동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 제 2회기

- ▶일 시 : 2000. 10. 24. 화
- ▶목 표 : 자신의 장점 표현으로 자신을 이해, 수용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타인의 감정도 존중할 줄 안다.
- ▶주 제 : 나를 광고해 보자(자신의 장점을 생각하여) - 플라쥬로 나타내기
- ▶준비물 : 잡지, 가위, 5절 켄트지, 펜, 크레파스, 풀 등
- ▶활동과정

(1) 도입

눈을 감고 자신의 장·단점들을 떠올려서, 단점은 땅에 파묻고 (동작) 장점은 잡지에서 자신의 장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올려붙이도록 함.

(2) 활동

잡지책들을 모아준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열심히 잡지책을 뒤져 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오려냈다. 야한 사진이 나오면 ‘청소년 관람불가’라고 농담도 하면서 열심히 활동했다.

○요 정 : 효도를 잘한다고 자랑함.

○콩 쥐 : 심부름을 잘해서 아빠가 오빠보다 믿음직하다고 칭찬했다고 함.

○만 수 :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장점이라고 소개함.

(3) 느낌 나누기

‘친구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장점들을 잡지책을 오려서 표현해보니 재미있었다.’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 친구들이 활동한 것을 보고 들으면서 고칠 점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 ‘단점들을 땅에 파묻고 나니 속이 시원하다.’ 등 다양한 느낌을 주고받았다.

♣ 제 3회기

▶일 시 : 2000. 10. 27. 토

▶목 표 :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자존감을 높인다.

▶주 제 : 자소상 만들기(조소로 나타내기)

▶준비물 : 지점토, 고무찰흙

▶활동과정

(1) 도입

상대방 얼굴에서 잘 생긴 부분을 찾아내어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해준다. 눈을 감고 자신의 얼굴을 더듬어 자세히 만져본 후 자

소상을 만들도록 했다.

(2) 활동

‘얼굴을 만져보니까 간지러웠다.’ ‘이상했다.’라고 하면서 신나게 지점토를 두들기고 주무르면서 자소상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자연책 :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의 모자를 만들어 씌웠는데, 나도 나라를 빛내고 싶음.

○콩 쥐 : 아빠가 입이 예쁘다고 칭찬해서 입을 강조함. 머리를 염색하고 싶어서 고무 찰흙으로 나타냈는데, 진짜 염색한 것처럼 기분이 좋음.

○요 정 : 작은 언니와 큰언니만 핑크색 안경을 써서 나는 열을 받았었는데, 안경을 핑크 색으로 만드니까 가족들과 친해진 느낌이 듦. 주황색 머리를 하고 싶음.

(3) 느낌 나누기

‘처음으로 내 얼굴을 자세히 만지니까 따뜻한 느낌이 들어 좋았다.’ ‘머리 스타일, 생김새 등을 바꿔보니까 재미있다.’ ‘내가 나를 만드니까 내 모습이 잘 드러난 것 같다. 하지만 내 모습 같지 않다.’ 등 다양한 느낌들을 주고 받았다.

♣ 제 4회기

▶일 시 : 2000. 10. 31. 화

▶목 표 : 학교 생활 및 교우 관계를 재확인하며, 학교 생활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주 제 : 나의 학교 생활은? (학교 생활화 KSD 그리기)

▶준비물 : A4용지, 필기구

▶활동과정

(1) 도입

눈을 감고 그 동안의 학교 생활을 생각해 보고, 경험 나누기를 한 후 학교생활화(KSD)를 그리게 했다.

(2) 활동

A₄용지에 학교 생활 그림(KSD)을 그리고 발표하도록 했다.

- 자연책 : 과학을 잘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과학 시험을 잘못 봐서 기분이 좋지 않음. 앞으로 더욱 복습을 열심히 하겠음.
- 소 라 : 운동회 날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꼴찌를 했는데, 지금도 속상함.
- 매트릭스 : 수학시간에 수학 부장과 싸웠는데, 다음부터는 싸우지 않겠음.

(3) 느낌 나누기

콩쥐가 새로운 놀이를 개발해서 머리가 발달되도록 해야겠다고 하자, 허 준이 긍정적으로 격려해 주었다. 그러나 상담자가 학교 업무 처리로 마음이 바쁘다보니, 아이들에게 그 느낌이 전달됐는지, 자연책이 '오늘은 느낌이 잘 안 온다.'라고 해서 상담자가 현재의 느낌을 솔직히 말하고 반성했다.

♣ 제 5회기

▶일 시 : 2000. 11. 4. 토

▶목 표 : 자기 정서 및 타인의 감정을 재인식하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줄 알며, 자기 자신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주 제 : 남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상자 안과 밖 꾸미기)

▶준비물 : 상자, 잡지책, 색종이, 가위, 풀 등

▶활동과정

(1) 도입

인간 사슬풀기를 하여 몸과 마음을 가볍게 풀고 시작했다. 잡지책, 색종이, 가위, 풀 등으로 작은 상자 안쪽에는 내가 보는 나를, 상자 바깥쪽에는 남이 보는 나를 꾸미도록 지시했다.

(2) 활동

○ 허 준 : 상자 밖은 남에게 화를 잘 내고, 잘난 척 하는 모습을 꾸미고, 안쪽은 ‘모든 것에 뛰어나라’고 하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것을 표현함. 그 때문에 친구들에게 잘난 척 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것 같다고 하며. 시무룩해졌다가, 동네에서는 인성이 밝다고 칭찬 받으며, 동생에게도 얻어맞는 착한 형이라고 덧붙임.

○ 매트릭스 : 상자 밖은 ‘남을 이유 없이 잘 때린다’고 커다란 주먹과 머리끝이 바짝 선 곰돌이를 표현함. 안쪽은 마음은 착한데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족한 것을 표현함.

(3) 느낌 나누기

‘친구가 보는 내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내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못해봤었는데 반성도 되고 좋다’ 등 다양한 느낌을 나누었다. ‘친구들이 남자라고 놀릴 때 기분이 몹시 나쁘고 때려주고 싶다’고 소라가 말하자 상담자는 모두 눈을 감고 제일 미운 사람을 떠올리라고 한 후 깔고 앉았던 방석을 그 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실컷 때려주라고 지시하자 모두 힘을 다하여 예절실이 떠나가도록 방석을 두들기고 발로 밟고 야단법석이 되었다. 나중에는 모두 시원하다고 하며 실컷 웃었다.

♣ 제 6회기

▶일 시 : 2000. 11. 10. 금

▶목 표 : 자기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고 자신감을 증진시킨다.

▶주 제 : 나는 국가대표 선수! (그리기)

▶준비물 : 켄트지, 크레파스 등

▶활동과정

(1) 도입

‘사냥꾼과 나무꾼’이라는 게임을 진행하며 몸과 마음을 가볍게 풀고 시작했다. 게임이 너무 재미있어 더하고 싶다는 아이들을 달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눈을 감고 10년 후 세계올림픽 대회에 자신이 한국 대표 선수로 출전했다고 상상하고, 막 우승하여 금메달을 획득하는 감격의 순간을 떠올려보라고 지시했다. 그런 후 그 느낌을 그려보도록 했다.

(2) 활동

체육시간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 ‘올림픽’ 소리가 나오자마자 좋아했다.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지시하자 모두 신나게 대표선수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듯 그림으로 표현하고 발표했다.

○요 정 : 할아버지와 아빠가 마라톤 대회에 관심이 많음. 나도 여자 마라톤 대회에서 29번을 달고(학급에서 자신의 번호) 일등으로 골인함. 자신은 놀란 표정, 다른 사람들은 쩡그린 표정으로 표현함.

○만 수 : 가족 중에서 달리기를 제일 못하는데, 체육시간에 열심히 연습해서 3번을 달고 골인 테이프를 끊음. 너무 기뻐서 “오마이 갓”소리가 나왔다고 함.

○허 준 : 프랑스올림픽에서 일본과 검도시합, 3:1로 역전승, 눈물 흘리며 감동하는 모습, 주위 사람들 장하다고 칭찬, 사부님 등

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응원, 기쁜 소식을 부모님께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음, 나라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으로 기분이 매우 좋고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함.

(3) 느낌 나누기

모두 금메달을 딴 것 같은 흥분된 기분으로 들떠서 자기가 먼저 느낌을 발표하겠다고 시끌벅적해졌다. 상담자가 차례를 정해주어 겨우 진정시키고 느낌을 나누었다. '2010년 세계태권도 대회에서 꼭 상을 타겠다' '달리기 할 때 항상 3~4등을 했는데, 금메달을 딴 상상을 해보니 기분이 너무 좋다'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딴다는 생각을 못해봤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 '그림으로 표현해보니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등 다양한 느낌들을 나누었다.

♣ 제 7회기

▶일 시 : 2000. 11. 14. 화

▶목 표 : 자기 욕구를 인식하고 자기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

▶주 제 : 나의 소망은?(소망 그리기)

▶준비물 : 켄트지, 크레파스 등

▶활동과정

(1) 도입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는 게임을 하여 몸과 마음을 가볍게 풀고 시작했다. 자신을 하나의 씨앗으로 생각하고, 막 싹이 되어 나오려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표현하도록 지시했다.

(2) 활동

작은 씨앗, 큰 씨앗, 별 모양 씨앗 등 다양하게 그린 후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표현했다.

○꿀뚜기 : 쓸쓸하니까 친구가 필요하고, 껍질에서 나오려는 힘이 필

요하므로 알통으로 표현함.

○콩 쥐 : 튜울립 씨앗을 심자, 봉우리가 맺히고 꽃을 피움. 주인에게 사랑 받는 꽃이 되고 싶음. 싹을 피우려면 정성이 제일 필요할 것 같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음.

○소 라 :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나비가 힘내라고 도움과 격려를 해 줌. 태어나서 세상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음.

(3) 느낌 나누기

허준이 콩쥐에게 정성을 다해 싹을 키우는 모습이 아름답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격려해줘서 모두 웃었다. ‘엄마가 임신 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느낌이 든다’ ‘고통이 있으면 낙이 온다’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꽃으로 태어나서 내가 그린 것처럼 생활 하고 싶다’ ‘희귀식물이 아니면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싶다.’ ‘씨앗에서 꽃으로 태어날 때 정성도 중요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이 더 아름답다’ 등의 느낌을 나누었다. 순진한 아이들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어른스럽고 생각이 깊은 것을 보고 상담자가 감격했다고 말해주었다.

허준과 꿀뚜기가 “고생은 보람으로 간다” 라고 합창을 해서 모두 웃었다.

♣ 제 8회기

▶일 시 : 2000. 11. 15. 수

▶목 표 :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및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한다.

▶주 제 : 동물 가족화 그리기

▶준비물 : 동물그림, 크레파스, 펜, 풀, 4절지 등

▶ 활동과정

(1) 도입

자신의 가족들을 여러 동물들의 특징과 비유해서 각각 나타내 보라고 지시하자 재미있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다.

(2) 활동

자신의 식구들을 다양한 동물들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진지하게 발표를 잘 했다.

○자연책 : 자신은 노래를 잘 부르고, 학원에 늦을 때 날아가고 싶어서 새, 막내 동생은 유치원에서 달리기를 잘해서 말, 아빠는 술을 잘 마셔서 고래, 첫째 동생은 귀찮게 해서 황소, 엄마는 자신이 잘못하면 화내고 무서워서 호랑이로 표현했다고 함.

○바 다 : 누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컴퓨터를 차지해서 아무 등지어나 알을 낳는 뱀꾸기, 자신은 친구들이 머리가 좋다고 해서 원숭이, 아빠는 많이 먹어서 코끼리, 삼촌은 자신을 잘 도와 주어서 토끼, 엄마는 화내면 무서워서 불 뿜는 공룡(어제 컴퓨터만 하는 누나에게 화내는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함.

(3) 느낌 나누기

‘동물로 표현해보니 동물나라에 온 것 같다’ ‘동물의 세계가 재미있을 것 같아 동물의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 ‘가족에게 불만이 있었는데 동물로 표현해 보니까 속이 시원하다’ ‘가족들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았는데 발표해보니 쉬웠다’ 등 다양하게 느낌들을 나누었다. 바다가 ‘엄마가 누나에게 화낸 것을 사과했으면 좋겠다’ ‘2시간 동안 가출했던 누나가 불쌍하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려서 모두 심각해지기도 했다.

♣ 제 9회기

▶일 시 : 2000. 11. 17. 금

▶목 표 : 자기정서를 이해하고,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

▶주 제 : 기뻐던 일, 슬펐던 일 그리기

▶준비물 : A₄용지, 필기구

▶활동과정

(1) 도입

A₄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뻐던 일과 슬펐던 일을 생각해 보고 표현해보자고 지시했다.

(2) 활동

슬펐던 일은 모두 울면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끼리 서로 공감해 주고 격려해 주는 모습이 너무 대견스러웠다.

○만 수 : 컴퓨터를 샀을 때 기뻐움. 엄마와 아빠가 차 사고가 나서 엄마가 척추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울면서) 가장 슬펐음. 그래도 지금은 건강해지셔서 다행임.

○바 다 : 컴퓨터에 애러가 자주 생겼었는데, 새로 바꾸게 되었을 때 기뻐고, 2학년 방과후 활동을 하다 진열장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에서 다섯 바늘을 꿰매게 되었는데 마침 아빠가 부산으로 떠나시게 되어 더욱 섭섭하고 슬펐음(울음).

(3) 느낌 나누기

‘오늘 활동을 하고 나니 기뻐던 일은 더욱 기쁘게 느껴졌고, 슬펐던 일은 마음을 털어놓아 시원하게 느껴졌다’ ‘친구들이 어떨 때 슬펐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다음부터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위로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가 몸이 아팠던 일을 듣고 건강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기뻐던 일은 또 하고 싶고, 슬펐던 일은 저번에 활동처럼 땅에 묻고 싶다’ 등 솔

직하고 다양한 느낌들을 서로 나누었다.

♣ 제 10회기

▶일 시 : 2000. 11. 21. 화

▶목 표 : 자기정서를 이해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인다.

▶주 제 : 이야기 듣고 뒷부분 상상하여 그리기

▶준비물: 크레파스, 화지 등

▶활동과정

(1) 도입

눈을 감게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래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 눈을 떠서 이야기 뒷부분을 상상하여 그리도록 지시했다.

<이야기>

어느 날, 깊은 밤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두들 잠이 들어 아주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 날 따라 하늘에서는 수많은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서쪽 하늘에서 불빛이 번쩍이더니, 비행물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비행물체는 마을 놀이터에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완전히 멈추어 선 비행 물체 위쪽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공상 영화에서만 보아 왔던 외계인 두 사람이 걸어나왔습니다.

(2) 활동

외계인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모두 관심을 가지고 조용히 듣다가, 눈을 뜨고 뒷부분을 상상하여 그리라고 지시하자마자 남자들이 총 쏘는 시늉, 텅구는 시늉 등을 하면서 갑자기 시끌벅적해졌다. 남자 아이들은 싸우는 장면을, 여자아이들은 정서적인 장면을 주로 표현

하였다.

- 자연책 : 요즘 지구가 오염되어 안드로메다 외계인이 지구인을 도와 주러 옴. 지구에 여러 가지 자원을 갖다줌(햇빛, 나무, 물, 공기 등). 지구인들의 숫자와 같은 외계인들이 와서 도와줌.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주고, UFO도 빌려주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을 표현함.
- 콩 쥐 : 우주선에서 외계인 두 명이 걸어 나오다가 슈퍼에서 빵과 우유를 사고 놀이터로 허겁지겁 달려가서 놀고 있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줌. 나쁜 외계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착한 외계인들도 있음. 달님은 감격하여 울고, 별님은 감동해서 하트 모양으로 모이는 것을 표현함.

(3) 느낌 나누기

‘게임내용을 모방해 표현해 봤는데 재미있었고, 갑자기 집에 가서 게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달과 지구가 충돌해서 지구가 먼지로 변한다고 표현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외계인도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나타내니까 재미있고, 외계인과 싸운 것 같은 실감이 나는데 실제로 외계인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느낌을 발표했다. 요정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외계인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선물도 사오셨으면...’하고 바램을 얘기하기도 하였다.

♣ 제 11회기

▶일 시 : 2000. 11. 22. 수

▶목 표 : 자기 자신을 새롭게 정립하고 자신감을 증진시킨다.

▶주 제 : 나는?(폴라쥬로 나타내기)

▶준비물 : 켈트지 전지,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등

▶활동과정

(1) 도입

두 사람씩 짝을 짓고 켈트지 전지에 한 사람씩 종이 안에 온 몸이 들어가게 누운 다음 다른 사람이 색연필로 전신을 본떠주도록 지시했다(이 때 스킨십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음). 그 다음 자신의 전신그림을 앞에 펴고 앉아 조용히 눈을 감게 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더듬어 만져보게 한 후 아래의 명상을 들려줬다. 그 다음 잡지책 등에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좋아하고 원하는 것, 장점, 단점 등)을 오려서 전신 그림에 붙이도록 지시했다.

<내 모습 들여다보기>

잘한 점, 좋은 면을 보는 것은 흐뭇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잘 것 없고 부족한 면을 보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후회와 낙심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내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장점은 키워가고 부족한 점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2) 활동

잡지책으로 콜라주를 하는 게 신이 나는지 좋아서 부지런히 활동했다. 야한 사진이 나오면 ‘청소년 관람불가’라고 하고는 웃으면서 ‘미소님(상담자)도 보세요.’라고 권하기도 했다. 콜라주를 마치고 벽

에다 각자의 작품을 걸어놓자 너무 좋아하면서 발표하였다.

o요 정 : 머리를 칼라 염색하고 싶고, TV를 좋아함. 어른 목걸이가 더 예뻐 보여 붙이고 아가씨들처럼 야한 신발을 신고 싶음. 엄마가 싫어하지만 매니큐어를 매일 바르고 싶고, 춤을 못 춰서 춤을 잘 추는 가수들을 붙여 놓았음.

o매트릭스 : 염색하고 싶음. 키가 작아 '우동'이라고 놀리는 것이 싫음. 그런데 오늘 점심시간에 우동이 너무 맛있었음(모두 웃음). 웃기는 것, 재미있는 것, 삼행시를 좋아함. 안경 쓴 것이 부럽고, 드래곤볼, 자전거, 신발에 관심이 많아 붙임.

(3) 느낌 나누기

매트릭스(계속 자기가 먼저 발표하겠다고 우기고. 먹는 것이 나오면 먹는 시늉을 함)는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다 못 붙여서 아쉽고, 몸을 본뜰 때 간지러워서 웃음이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활동을 하고 나니 욕심이 생겨서 모두 갖고 싶었다는 느낌을 덧붙였다.

요정은 본 뜰 때 너무 간지러웠으나 재미있었으며, 솔직하게 못 붙인 게 딱 하나 있는데 나중에 집에서 붙여서 엄마에게만 보여주고 싶다고 하여 상담자가 껏속말로 말해달라고 해도 웃기만 했다.

바다는 케이크가 먹고 싶어 붙였는데 친구들이 침을 흘리며 먹고 싶어해서 괜히 붙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기까지 했다. 상담자는 바다 덕분에 케이크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아졌다고 격려해주자 빙그레 웃었다.

♣ 제 12회기 (축어록)

▶일 시 : 2000. 11. 24. 금

▶목 표 : 자기존중감 향상, 사회적응력 향상, 자기 삶에 주체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다.

▶주 제 : 우리가 만드는 세상(협동화 그리기)

▶준비물 : 쉐트지 전지,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등

▶활동과정

(1) 도입

o상담자 : 오늘은 다음 마지막 회기를 남겨놓고 ‘우리가 만드는 세상’ 협동화를 그리도록 하겠어요. 팀 별로 쉐트지 전지를 한 장씩 줄 테니, 서로 의논해서 마음껏 ‘우리들이 바라는 세상’을 그려보도록 하세요. 어떻게 팀을 조직하는 게 좋겠어요?

o여자들 : (합창하듯이)남자팀, 여자 팀으로 나눠서 하세요!

o상담자 : 그러면 남자어린이 7명, 여자어린이 5명이 각 한 팀이 되어 그리도록 하겠어요. 불만 있어요?

o다같이 : 아니오.

o상담자 : 그럼 시작하세요.

(2) 활동

남자 팀은 잠시 의논하더니 자신 있게 일을 분담한 후 그리기 시작했으나, 여자 팀은 의견이 잘 맞지 않았는지 의논한지 10분 이상 지나도 시작도 못하고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남자 팀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졌는지 불만들을 늘어놓으면서 각자 따로따로 그리기 시작했다.

남자 팀 그림이 완성되자, 상담자가 여자 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남자 팀 그림이 잘 표현되었다고 칭찬하면서 학예회 전시회에 내놓자고 했다가 여자아이들이 울면서 미소님(상담자)은 남자 팀 그림만 칭찬한다고 항의하는 바람에 상담자는 사태를 수습하느라고 혼쫓났다. 상담자는 미묘한 여자들의 심리를 헤아리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면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느꼈다.

o상담자 : 팀 별로 표현들을 아주 잘 했는데, 팀 별로 자신이 그

린 것을 중심으로 소개해볼까요?

- o남자팀 : (합창하듯이) 우리 팀 제목은 ‘평화의 해저도시’입니다.
- o허 준 : 스타 PC방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며, KBS방송국, 놀이동산, 999해저철도 통로가 있습니다.
- o바 다 : 만삼천년 후의 세계입니다.
- o꿀뚜기 : 저는 종합 건물과 놀이동산을 그렸습니다(허준이 끼여들면서 제 아이디어라고 자랑함).
- o자연책 : 평화의 도시지만 다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해저종합병원을 그렸고 넓은 바다를 순식간에 갈 수 있으며, 정거장에는 기차가 있는데 광속처럼 달리는 아주 빠른 기차입니다. 그리고 놀이 동산에서 놀다가 다친 환자가 앰블린스에 실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 o만 수 :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그릴게 없어 제일 조금 그렸습니다. 통신기가 달린 나무를 그렸고, 이 타임머신은 만약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 시대로 되돌아 갈 수 있는데 요금은 100원입니다(너무 싸다고 이구 동성으로 얘기함).
- o바 다 : 종합건물을 그렸는데 1~5층은 주거지역이고, 6층 꼭대기는 마이크로웨이브(MCW라고 영어로 씀)발전소입니다. 그리고 화지가 좁아서 지하는 표현하지 못했는데 아쉽습니다.
- o운동인 : 저는 미니카 코스와 급할 때 이용하는 공간 순간 이동기를 그렸습니다(허준이 “내가 색칠했어요.”라고 자랑함).
- o매트릭스 :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어느 말부터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듯이 서두르며)미사일이 나가서 수리를 하고, 물고기 잠수함, 올림픽 경기장과 집천정이 열리면서 로켓트가 나가는 것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톱상어 잠수함, 경찰 물고기입니다(허준이 말을 가로채면서 50만원 짜리 골드피쉬와 미래형 통로에 사람들이 탔다고 말하

자, 다시 매트릭스가 열차에서 사람이 날아가는 모습인데 보호막이 쳐져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며 그래서 ‘평화의 해저도시’라고 강조함).

o상담자 : 남자 팀이 너무 멋있는 세상을 표현했군요. 제 표현이 잘 못되어 여자 팀이 화가 난 것 같은 데 선생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술활동을 시작할 때도 강조했지만 미술활동은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과 느낌을 표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잘했다고 너무 칭찬을 하다보니 그런 오해가 발생한 것 같은데, 오해를 하게 한 선생님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성하며 여러분께 사과합니다. 이해하세요.

o경 현 : (그래도 섭섭한 감정이 있다는 듯이 웃지 않으며) 여자 팀의 제목은 ‘미래와 우주의 발전’이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어도 움직이는 길과 정류장을 표현했습니다.

o소 라 : 버스와 자동차에 날개를 달아서 미래로 세계 여행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남아서 차차차다방, 하하하 단란주점, 랄라라슈퍼, 호호호분식을 표현했습니다.(모두들 재미있는 이름이라고 칭찬해줌)

o고운이 : 우주선 빌라(3층건물)를 그렸습니다.

o콩 쥐 : 저는 날아다니는 사람을 표현했는데, 날개옷을 입고 버튼을 누르면 캡슐이 커지면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o요 정 : 저는 여러 사랑하는 커플을 그렸고, 구름 위의 화장실, 분리수거통을 그렸습니다. 또 이것은 하늘 나라 교통으로 남 급할 때 양보하면, 나 급할 때 빨리 갈 수 있습니다(표어를 말함).

o상담자 :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군요? 야! 대단한데...(칭찬해주자 여자들의 얼굴들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으나, 예민

한 콩쥐는 계속 뽀루뽀해 있음)

(3) 느낌 나누기

- o상담자 : 오늘 선생님의 기대보다 협동화를 더 잘 표현해 주었는데, 활동을 마치면서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 o허 준 : 평화의 해저도시를 건설한 대장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것을 그린 자신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 o만 수 : 만 삼 천년 후 이런 도시를 건설하고 7명의 대장을 뽑아 살고 싶습니다.
- o매트릭스 : 잘 표현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하고, 다시 태어나면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여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세계 정복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해서 친구들이 모두 웃음).
- o바 다 : 그렇게 더 많았을 데 여백이 부족하여 아쉽습니다.
- o꿀뚜기 : 죽지 않고 이런 세대까지 계속 살았으면 하는 생각과 모든 사람들이 무병장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 o운동인 :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고, 미니카 경주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 o자연책 : 놀이 동산에 가본 적이 없는데 꼭 가보고 싶습니다.
- o허 준 : 이런 도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 o만 수 : 해저도시 말고 목성에다 이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 o매트릭스 : 만수의 의견에 동의하며, 도시가 발달 되도 공해가 없고 나쁜 사람들이 없으며, 착한 사람만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o허 준 : 저의 명언 한 마디, '세상은 변하면서 아름답다!'(모두 웃음)
- o경 현 : 처음에는 생각이 잘 나지 않았지만 만화 생각을 하니까 잘 그려졌습니다. 평화로운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다.
- o고운이 : 진짜 이런 도시에 살고 싶고, 또 다시 이런 활동을 하고 싶

습니다.

o콩 쥐 :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어서 섭섭합니다.

o요 정 : 아침, 저녁으로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는데, 버스가 제 때에 안 와서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날개옷을 입고 날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o상담자 : 느낌까지 모두 잘 말해 주었는데 여러분들을 칭찬하면서, 다음 마지막 회기까지 열심히 잘 해 봅시다.

o다같이 : 미술활동 더 많이 하면 안돼요?

o상담자 : 선생님도 더하고 싶지만 계획이 되어 있고, 이 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미안하고 해서 다음부터는 우리 반 모두 다같이 미술활동을 하기로 합니다. 이만 마치겠어요.

♣ 제 13회기

▶일 시 : 2000. 11. 25. 토

▶목 표 : 사후 검사를 통하여 미술활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재인식하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지속할 수 있다.

▶주 제 : 인물화 검사 및 K-HTP(동적-집·나무·사람검사), 자아개념검사. 미술활동을 마치며 소감나누기

▶준비물 : 필기구, A4용지

▶활동과정

(1) 사후검사

그 동안 미술활동을 하고 나서 얼마나 자신이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를 하겠다고 한 후, 준비한 종이를 두 장을 가로로 제시하며 ①쪽에는 인물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②쪽에는 집, 나무, 그리고 뭔가 하는 사람의 전체 모습을 그리라고 지시했다. 사람의 전체 모습을 그릴 때 만화 혹은 막대 인물상으로 그

리지 않도록 주의시켰다.

그 다음 자아개념 검사지를 나누어주고 솔직하게 표시하도록 지시 했다.

(2) 마무리 소감 나누기

- o 허 준 : 자신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중요함을 느낌. 좋은 프로그램에 고마움. 앞으로도 계속했으면 좋겠음. 미술활동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좋은 보탬이 되었고 끝나서 서러움(눈물).
- o 풀뚜기 : 미술 활동이 아주 재미있었고 또 했으면 좋겠음.
- o 만 수 : 처음에는 재미없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하다보니 재미있었고 활동을 마치고 나니 섭섭함.
- o 자연책 : 그 동안 재미있는 놀이와 활동으로 장점만 살리면서 활동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음.
- o 요 정 : 처음에는 무서워서 하기 싫었는데 나중에는 재미있었음.
- o 콩 쥐 : 미술활동을 하면서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대로 그림을 그렸음. 두 달 동안 활동한 것이 마음에서 작은 씨가 되어 지금은 아름다운 꽃이 된 것 같음.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서 프로그램을 실시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 드리고, 4학년의 중요성을 알게 됨.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미안함.
- o 소 라 : 활동을 마치고 나면, 지난 활동 때 '그리고 싶은 세상'을 그릴 때 기분 나빴던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기쁜 일만 생각하겠음. 미술활동으로 친구들과 더 친해져서 좋음. 한 달만 더하면 안될까요?
- o 경 현 : 그 동안 배운 것이 너무 많음. 오늘이면 끝나는데 섭섭함.
- o 고운이 : 미술활동을 마치니 계속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기분이 우울해짐.
- o 바 다 : 지금까지의 활동이 즐거웠는데 아쉬움.
- o 운동인 : 활동하는 것이 재미있었는데 끝나서 아쉬움. 공부도 잘되었

고, 어려운 것도 쉽게 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 수 있었으며, 나 자신을 알 수 있었음.

o 매트릭스 : 미술활동이 재미있었으며 마치게 되어 아쉬움. 엇그제 시작한 것 같은 데 금방 지나버려 아쉽고 힘이 빠짐.

o 상담자 : 두 달 동안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끝까지 참가하고, 열심히 활동해 준 것을 칭찬해줌. 아쉽지만 오늘로 활동을 마치고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서 달라진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보자고 약속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마침.

♣ 추수지도

▶ 일 시 : 2000. 12. 23(토)

▶ 목 표 : 활동 후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

▶ 주 제 : 달라진 나의 모습 알기, 자아개념 추후검사

▶ 준비물 : 필기구, A4용지

▶ 활동과정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서로들 인사하고, 상담자가 미술활동을 하고 난 후 자신이 모습이 달라진 사람은 손들어 보라고 하자 모두 손을 들었다.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시 계속 미술활동을 하자고 떼를 쓰기도 했다.

활동의 지연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술활동을 마치고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써 보라고 했다.

o 경 현 : 동생에게 짜증내던 일이 드물어지고 남자아이들에게 괴팍하게 굴던 행동이 없어진 것 같음.

o 고운이 : 생각이 깊어지고, 자신감이 생겨 발표도 잘 하게 되어(발표력이 없었던 어린이임) 미술활동이 나에게 도움을 준 프로그램이란 것을 알게 되었음.

- o 매트릭스 : 친구가 놀려서 학교생활이 싫었었는데 참을성이 많아져서
이제는 놀려도 상관하지 않게 되었음.
- o 바 다 :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친구들과는 좀 친해졌음.
- o 콩 쥐 :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친구들과 더욱 사
이가 좋아졌고 내 자신이 더욱 강하게 된 것 같음.
- o 자연책 : 동생들을 놀리고 귀찮게 굴었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고쳐졌
고, 또 동생들을 많이 아껴주게 되었음.
- o 운동인 : 자신감이 생겼고 정신도 강해졌음. 친구들과도 사이 좋게 잘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음.
- o 요 정 : 자신감이 생겨 발표도 잘하게 되었고, 언니와 사이 좋게 지내
고 있으며 부모님께서도 나에게 관심이 많아 졌음. 하지만 친
구 사귀는 것은 잘 안됨.
- o 꿀뚜기 : 옆작꿍 ○○에게 괜히 화풀이를 잘 했었는데 미술활동을 하
면서 하루하루 달라지게 되었음.
- o 만 수 : 자신감이 생겨났고, 친구들과도 사이 좋게 지내게 되었음. 그
리고 그림을 잘 그리게 되었음.
- o 허 준 : 자신감이 생겼으며 나에게 대해 잘 알게 되었으며, 가정의 소
중함도 알게 되었음. 그리고 모든 과목에 자신감이 생겼고 정
신력이 강해진 것 같음.
- o 소 라 : 친구들과 잘 놀고, 동생과 싸우지 않게 되었으며 자신감과
집중력이 좋아진 것 같음.

<부록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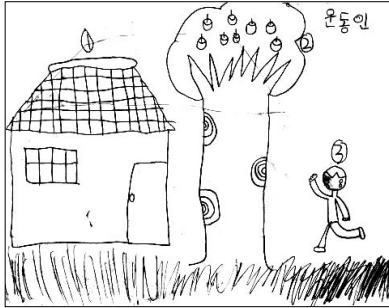
상담집단의 사전·사후 K-HTP검사의 특징 비교분석

구 분	집	나 무	사 랫	기 타
만 수	*변화 없음.	*사전검사 보다 더 위축 됨.	*표정이 밝아짐.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비침.
펼 뚜 기	*집의 방향이 안정됨.	*변화 없음.	*활동성이 많아 짐.	*기저선이 없어 짐.
허 준	*지붕의 복잡한 무늬가 단순해지고 안정됨.	*나무가 커지고 수관이 풍성해 짐.	*변화 없음.	*땅위의 복잡한 풀 모습들이 사라지고 사람을 애워싸던 파라솔이 사라짐.
자 연 책	*집의 방향이 안정되어짐.	*과일 열린 나무의 수가 많아 짐(1그루에서 4그루로).	*땀을 흘리며 나무를 가꿈.	*연못에 봉어 한 마리가 있었으나 없어짐.
운 동 인	*지붕의 뻣뻣한 바둑무늬가 느슨해지고 창문 및 문의 갯수가 많아짐.	*나무 열매와 웅이가 없어졌으나 나뭇줄기 끝이 가지처럼 뽕족뽕족한 것이 변화 없음.	*나무를 향해 땀을 흘리며 뛰어가는 사람이 나무 옆에서 책을 읽고 있음.	*아래쪽에 어지러운 스트로크가 없어지고 그린순서가 집→나무→사람에서 나무→사람→집으로 바뀜.
바 다	*지붕 위의 복잡한 바둑무늬의 선이 없어짐. 창문의 갯수가 많아짐.	*나무의 새 등지가 없어짐. *겨울이 되어 수관이 빈약해 짐.	*겨울 방학이 되어 신나서 팔을 올린 모습. 옆모습이 앞모습으로 바뀌고 벌린 다리의 각도가 안정됨.	*집, 나무, 사람간의 거리가 가까워짐.

구 분	집	나 무	사 랫	기 타
매트릭스	*집 모양이 불안해졌으나 지붕의 선은 없어짐	*열렸던 과일이 없어지고 나무는 커짐	*신나게 뛰어 노는 아이들이 많아짐	*전체적으로 좀 산만해짐
고운이	*허름한 초가집에서 안정된 양옥집으로 바뀜. *문이 넓어지고 손잡이가 생김.	*빈약한 한 그루의 나무가 좀 풍성해진 세 그루의 나무로 바뀜.	*사람은 엷드린 모습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냄.	*집 둘레에 들담으로 둥그렇게 둘러진 울타리가 사라짐.
콩 쥐	*양옥집이 커다란 미술학원 빌딩으로 바뀌었으며 지붕 위의 무거워 보이던 둥근 물체가 사라짐.	*나무의 옹이는 조금 많아짐.	*사람의 표정이 밝아졌으며 긴장되었던 다리가 자연스럽게 안정되어짐.	*미술학원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표정 등 분위기가 활기차고 밝아짐.
소 라	*지붕 위의 아주 복잡한 무늬가 없어지고 실내의 모습으로 바뀜.	*나무의 위치가 중앙에서 오른쪽 옆으로 비껴섬.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던 아이가 실내에서 다정하게 차를 마시는 모습으로 바뀜. 표정이 매우 밝아짐.	*분위기가 온화하며 다정스럽고 사랑스러워짐.
경 현	*지붕 위의 선은 없어졌으나 집 모양이 불안해짐.	*나무의 수관이 커짐.	*나무의 과일을 따던 사람대신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서 고무줄하는 아이로 바뀜.	*태양이 없어지고 내용이 단순해짐.
요 정	*단층 양옥집이 3층 빌라로 바뀜.	*뽕족한 가지가 없어지고 수관이 풍성해 짐.	*집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나무와 가까이 서 있고 공부하는 모습을 나타냄.	*꽃 주위를 둘러싸던 뽕족한 나무 울타리가 사라짐.

<부록 5>

집단미술상담의 회기별 그림



<1회기 : K-HTP 사전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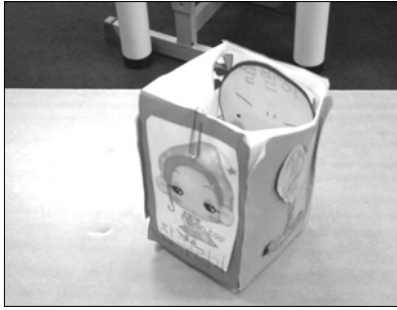
<2회기 : 나를 광고해 보자>



<3회기 : 자소상 만들기>



<4회기 : 학교 생활 그리기>



<5회기 : 내가 보는 나,
남이 보는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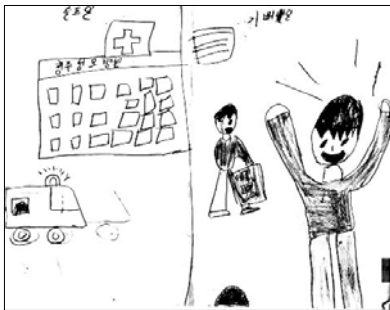
<6회기 : 나는 국가 대표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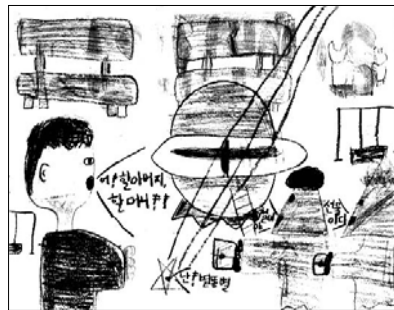
<7회기 : 나의 소망>



<8회기 : 동물 가족화>



<9회기:기뻐던 일, 슬펐던 일>



<10회기 : 상상의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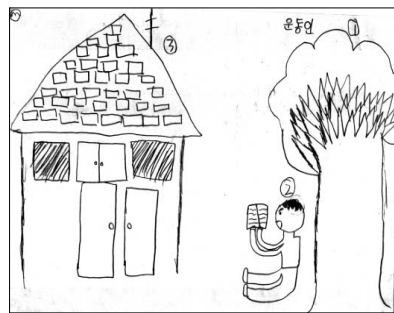
<11회기: 나는 ?>



<12회기:우리가 만드는 세상 I >



<12회기:우리가 만드는 세상>



<13회기 : K-HTP 사후검사>